

2014

# 해외이동학습 결과 자료집



제천간디학교



## 차례

개요 및 교육과정 목표와 설명- 1

일정- 3

해외이동학습 준비 및 평가- 9

평가-14

권효연- 34

김민정- 38

김성혁- 42

김예림- 44

김지형- 50

김태우- 53

노영빈- 54

박상연- 59

서명아- 63

서하린- 67

손채은- 71

송륜근- 73

안다연- 79

이가원- 84

장우정- 86

정기완- 90

조익준- 93

최형규- 95

부록(이전 해외이동학습과 비교)- 97



## 개요

년도	참가비	기간	학기	인솔교사	학생 참가자
2014	330만원	6주	1학기 무빙 2주전 출국 (1학기 기말주간 같이 보냄)	교사 3,(김정환·김수자·황정인) 공감만세 여행코디네이터 1,(바공실랑안-송수민/이 푸가오-조수희)	18명

### 1. 목표 및 교육과정 설명

#### 1. 목표

평화여행을 통해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구현하는 활동을 한다.  
(지향점)

공정여행을 통해 다른 문화와 지속가능한 소통, 문화·자연체험, 교류, 연대활동을 한다. (형태)

필리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는 한편 여행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서로 조율·공감하는 힘을 키운다. (내용)

필리핀 해외체험학습은 2학기 평화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평화 여행’으로 평화에 대한 가치 탐색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여행의 형태는 ‘책임여행’, ‘윤리적 여행’ 이라고도 불리는 여행자와 여행 대상국의 국민이 평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여행’을 따른다. 공정여행 중 여행과 봉사, 연대 활동을 펼치며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평화라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형성되는 문제의식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 평화 여행이란?

평화(平和)란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며, ‘평화를 지향한다.’는 말은 내면적으로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추구하는 한편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세계의 ‘분쟁 또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기에 ‘평화 여행’은 여행을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단순한 관광, 문화체험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평화 여행은 안락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언어, 역사와 문화, 가치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른 문화와 환경과의 갈등, 여정 중 서로 '다름'이 극대화되면서 마주하게 되는 친구들과의 갈등을 이해하고 조정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한편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정치 단위들 간의 분쟁·전쟁이 계속되고, 자본주의체제는 극심한 빈부의 차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지구 생태계와 그 안의 국가·사회·부족의 고유문화와 삶의 방식은 '여행·관광'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평화 여행'은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동등한 만남과 마음을 여는 소통, 각 전통문화의 정수인 예술교류, 윤리적 소비활동과 대안적 경제활동, 지속가능한 자연체험, 자본주의의 이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외면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3. 왜 필리핀인가?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평화'를 깨뜨리는 갖가지 문제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드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다민족으로 구성된 필리핀은 오랜 기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세계 1차·2차 세계 대전으로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의·타의로 한 국가로 탄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을 질게 받는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와 기독교, 합리주의 등을 앞세운 서구문명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필리핀 엘리트들을 통해 필리핀 사회에 '이식'되고 이에 따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필리핀이라고 불리지만 원래 각기 다른 종교, 문화적 관습을 가진 채 살아가던 섬들에는 일찍이 해상 무역을 통해 이슬람교가 전래되었다. 하지만 스페인의 식민 정책과 함께 필리핀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강압적으로 묶이면서 정치적·종교적 갈등이 시작되었고, 플랜테이션이 확대되면서 지주와 자영농 간의 경제적 갈등 역시 심화되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플랜테이션의 특성으로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옴에 따라 인종적인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미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 정치인들의 힘에 의해 눌렸고, 그러한 상황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난 많은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경제발전, 근대화를 내걸은 독재정권이 들어서고(마르코스 정권), 이를 극복하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민 단체들이 조직, 발전하기도 했다.(민중봉기 people power I, II)

이러한 필리핀 사회의 양상은 민다나오 내전으로 대표되는 종교·정치·경제적 갈등, 미국과 외세에 길들여진 필리핀 기득권층이 만들어낸 극심한 빈부의 격차, 플랜테이션을 통한 상품작물의 대량 생산을 통해 파괴된 자영농 계층과 토지 불균형, 잘못된 관광산업 정책과 관광산업 의존에 따른 산업 간의 불균형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즉 필리핀은 인종, 문화, 종교, 경제, 정치 등 전방위적인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을 풀어내려 노력하는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한 노력 역시 매우 다양한 방법과 색깔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다문화, 다민족으로 구성된 필리핀의 저력이며, 우리가 이들과 공감·연대 할 때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풀어내기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특히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필리핀 현대사회에서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자립을 꿈꾸며 살아가는 다양한 부족·마을과 연대활동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간디 선생님의 말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 일정

일 정		세 부 내 용
5.20.화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0 인천국제공항 만남</li> <li>· 19:35 7C2305 인천발</li> <li>· 22:40 마닐라 필리핀 국제공항 착</li> <li>· 숙박 아시아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니 새벽 2시</li> </ul>
5.21.수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도시빈민연합(UPA) 방문 (의장 알리스 머피)</li> <li>· 점심 즐리비 자유식</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카티 그린벨트</li> <li>· 아알라 박물관</li> <li>· 숙박: 아시아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li> </ul>
5.22.목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소가 있는 퀘존시 빌라촌 탐방 -&gt; 지도그리기</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골실랑안' 오리엔테이션 (트윅클)</li> <li>· 숙박: 아시아브릿지 필리핀 게스트하우스</li> </ul>
5.23.금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골실랑안 이동</li> <li>· 바골실랑안청년연합(BSYF: Bagong Silangan Youth Federation) 소개 및 청년들과의 첫 인사</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스테이 가족들과 인사하고 동네돌아보기</li> </ul>
5.24.토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티오 바깥어린이집 일일교사 (색종이접기, 풍선, 비누방울, 폴라로이드 사진, 장난감 가지고 놀기)</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티오 바깥어린이집 일일교사 (색종이접기, 풍선, 비누방울, 폴라로이드 사진, 장난감 가지고 놀기)</li> </ul>
5.25.일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골실랑안 '바카스'마을에서 문화교류 및 '아트 클래스' 활동 (색종이접기, 한복종이접기, 풍물배우기, 동요배우기)</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골실랑안 'AREA C UPPER'마을에서 문화교류 및 '아트 클래스' 활동 (색종이접기, 한복종이접기, 풍물배우기, 동요배우기)</li> </ul>
5.26.월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티오 바깥어린이집 책상 2개, 선생님 책상 1개 만들기</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상만들기를 늦게까지 마치고 바공으로 이동해서 늦은 점심식사</li> </ul>
5.27.화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티오 바깥어린이집 급식만들어 먹기 (닭튀김, 샐러드)</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YF와 같이 마음나누기</li> </ul>



일 정	세 부 내 용	
5.28.수	오전	· 홍수예방을 위해 강가에 망고로브 나무 심기
	오후	· 바공실랑안 사람 모듬별로 인터뷰하기 (어린이집 교사, 시장, 보건소 의사) · BSYP와 간담회 · 기완이 생일 파티
5.29.목	오전	· 시티오바깥 지역에 망고나무와 깔라만시 나무 심기
	오후	· 바공실랑안 청년 축제: 바공실랑안 청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만나 뒤편키는 노래와 춤의 축제
5.30.금	오전	· 이동: 바공실랑안 →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오후	· 휴식 · 한인여행사 '조은여행사'에 비자연장 신청 · 송수민코디와 송별식 · BSYP와 송별식 · 이동: 메트로 마닐라 → 키양안 (야간버스: 7시간)
5.31.토	오전	· 아침 6:30쯤 키양안 도착 · 시트모가 준비해 준 아침식사 · 시트모(SITMo: Save the Ifugao Terraces Movement) 소개 및 청년들과 첫 인사
	오후	· 홈스테이 배정 · 휴식 보장
6.1.일	오전	· 키양안 마을 둘러보기
	오후	· 전쟁사당과 이푸가오 박물관 방문
6.2.월	오전	· 키양안 센트럴초등학교 안 '아시아 평화 도서관'에서 책정리 : 신간서적 스탬프 찍고 인덱스 붙이기
	오후	· 키양안 센트럴초등학교 안 '아시아 평화 도서관'에서 책정리 : 기증도서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하기
6.3.화	오전	· 키양안사람들의 삶속에 들어가보기 - 일일 삶의 현장 체험
	오후	· 시트모와 간담회 - 서로 소개하기

일 정	세 부 내 용	
6.4.수	오전	· 시트모와 모듬별로 소풍하며 친해지기 (농장, 강가)
	오후	· 모듬별 미션 (시트모에게 한국동요 가르쳐 주기) 경연대회 · 키양안 센트럴 초등학교 학생들과 수업하기 (색종이접기, 축구교실, 팝업카드만들기)
6.5.목	오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나가카단 계단식 논 탐방 · 나가카단 계단식 논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이니난 마을 사람들을 만나다
	오후	· 전통공연 보기 · 쓰레기통 만들기, 잡초 제거하기, 울타리 만들기
6.6.금	오전	· 나가카단 초등학교 내 아시아평화도서관 활동 - 청소하기, 페인트칠하기, 책정리하기
	오후	· 나가카단 초등학교 내 아시아평화도서관 활동 - 페인트칠하기, 책정리하기 · 나가카단 초등학교 아이들과 수업하기 - 치약만들기, 색종이접기 · 초등학교 농구골대 그물망 기증 기부금 전달
6.7.토	오전	· 빌롱마을에서 벼수확 일 돕기
	오후	· 바이니난 마을에 가서 나무심기 · 컬쳐쇼 -> 모닥불 축제
6.8.일	오전	· 이동: 키양안 → 바나웨
	오후	· 바나웨 박물관 탐방 · 시트모와 이별
6.9.월	오전	· 이동: 바나웨 → 바타드
	오후	· 사이먼씨 오리엔테이션 · 대나무공예 구경하기
6.10.화	오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바타드 계단식 논 탐방 · 이푸가오의 젓줄, 탑피아 폭포
	오후	· 바타드 계단식 논 복원 · 이푸가오 주술사 '뭉바키'와 함께하는 안녕, 평화의 축제를 벌이다: 바타드 전통 축제

일 정	세 부 내 용	
6.11.수	오전	· 집으로 업서쓰기
	오후	· 이동: 바타드 → 바기오(장 시간 이동, 심야 도착)
6.12.목	오전	· 새벽 4시 도착 - > 휴식 보장 · 현지 오리엔테이션 : 탐아완 스태프 1인 · 탐아완마을 탐방
	오후	· 6.14일 모듈별 바기오 여행 기획하기
6.13.금	오전	· 드림캐쳐 만들기 · 전통 춤 배우기
	오후	· 탐아완 예술인 토크 - 슬라아트, 샌드아트, 티셔츠페인팅
6.14.토	오전	· 자유롭게 둘러보는 바기오 자유여행 (모듈별 이동)
	오후	
6.15.일	오전	· 이동: 바기오 → 메트로 마닐라 · 아시안브릿지 도착
	오후	
6.16.월	오전	· 휴식 · 파티 장보기
	오후	· 아버지날 행사 · BSYF 초대 저녁식사
6.17.화	오전	· 공감만세 4주 여행 전체 평가 간담회 · 공감만세 졸업식 · 조디쌤 송별회
	오후	· 이동: 메트로 마닐라 → 두마게티 (세부항공) · 환영식 및 학생 오리엔테이션

일 정		세 부 내 용		
6.18.수	오전	· 문화 오리엔테이션		
	오후	· 두마게테 탐방 및 미션투어 · 실리만 대학 박물관 방문		
6.19.목	오전	· 오슬롭 상어고래투어		
	오후	· 수밀론 섬 · 깔리까산 고등과정 학생들과 인사 · 깔리까산 고등과정 학생들과 축구경기		
6.20.금	오전		B group : 반다망가	C group : 전통춤
	오후			C group : 발렌시아 탐방
6.21.토	오전	A group : 여행 (시킴오르 섬)	전통춤	반다망가
	오후		발렌시아 탐방 깔라까산 중-고 축제 참여	깔라까산 중-고 축제 참여
6.22.일	오전	다우인 해변 / 해양보호구역 두마게티 자유시간		
	오후			
6.23.월	오전	새벽 : 월드컵 한국-알제리전 관람 반다망가 긴급스탑회의(음주)	여행 (쿠쿠네스트+아포섬)	새벽 : 월드컵 한국-알제리전 관람
	오후			비즈공예 리기론 체험 긴급스탑회의(음주)
6.24.화	오전	티니클링 전통춤		하바반
	오후	발렌시아 탐방 2차 긴급회의		2차 긴급회의 시티디니 고아원 방문(양초/놀이)
6.25.수	오전	온천 (레드 락)		온천 (레드 락)
	오후	3차 긴급회의		
6.26.목	오전	하바반	수공예	여행 (발렌시아+시킴오르)
	오후	시타드니 고아원(화채/한글)	리기론체험	
6.27.금	오전	수공예	하바반	
	오후	리기론	시타드니 고아원(머리끈제작/놀이)	
6.28.토	오전	콜드 스프링		
	오후	자유시간 깔리까산 학생들과 교류 간담회		
6.29.일	오전	다우인 해변		
	오후	자유시간		
6.30.월	오전	자유시간		
	오후	자유시간 밤거리 배회		
7.1.화	오전	짐싸기		
	오후	16:55 두마게티 -> 18:10 마닐라 23:55 마닐라 ->		
7.2.수	오전	04:50 인천공항 도착		

### 3. 필리핀 해외이동학습 준비

1) 수업명 : 필리핀 준비

2) 수업 요일과 시간 : 수 1~4 교시/ 목 묵학

3) 수업 개요 및 목적:

- (1) 필리핀의 일반적인 역사·지리·언어·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가는 지역과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 (2) 바공실랑안 어린이집, 키앙안 학교, 깔리카산에서 진행될 연대·교류 활동을 준비한다.
- (3) 바공실랑안과 키앙안에서 하게 될 프로젝트 활동비 모금을 기획·추진한다.
- (4) 공감만세와 국내 공정여행을 통해서 공정여행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알아본다.

4) 수업 운영 계획

- (1) 모둠별로 필리핀 역사·지리·언어·문화에 대한 탐구활동과 공유, 모둠별 연대·교류 활동 준비.
  - 모둠별로 각각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타이·베트남 네 국가의 근현대사에 대한 발제·토론 준비와 진행
  - 모둠 안에서 역사·지리·언어·문화 네 파트로 역할을 분담, 각자 탐구계획을 수립, 탐구한 내용을 모둠 안에서 공유
- (2) 전체가 참여하는 모금활동 기획·추진
  - 공감만세와 함께하는 해피빈 문구 작성, 홍보
  - 대동제 모금활동 기획·추진
  - 외부 모금활동 기획·추진

5) 수업계획 :

수업 일시	모둠활동	모금활동	전체 활동
2/26	필리핀 해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 필리핀 준비에 대한 안내, 모둠 구성, 모금활동 역할 분담		

3/5	필리핀 여정 알아보기	해피빈 문구 작성 및 홍보	평화에 대한 느낌, 생각 정리하기
3/12	필리핀의 역사·지리 전체 공유		
3/19	필리핀의 언어·문화 전체 공유	21일(금) 외부 모금 활동	
3/26	강의: 아시아 근현대사와 제국주의 필리핀 이주 여성과 필리핀 음식 만들어 먹기		
4/2	입교날/ 공감만세와 함께하는 공정여행(대전 원도심 일대)		
4/9	타이· 베트남 근현대사 발표/토론		
4/16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근현대사 발표/토론		
4/23	강연: 우리는 왜 공정여행을 가야 하는가?		
4/30	친환경 제품 제작		
5/7	대동제 모금행사 준비		
5/14	최종 준비(빨래줄)		

주교재: 교과서가 깜빡한 아시아 역사 3~5권 (개인별 1,2 필독)  
아시아의 어제를 걷다, 아시아의 오늘을 걷다

## 6) 진행 결과

4/16 (목)	필리핀 이주 여성과 필리핀 음식 만들어 먹기
4/20 (일)	강의: 아시아 근현대사와 제국주의/ 충주 거리 모금
4/23 (목)	타이· 베트남 근현대사 발표/토론
4/24 (목) ~25 (금)	대전 원도심 공정여행
4/30 (목)	짐 꾸리기에 대한 안내/ 명동 거리모금, 벼룩시장 준비
5/3 (일)	명동 거리 모금, 벼룩시장(가정학습기간)
5/11 (일)	충주 거리 모금
5/13 (화)	최종 점검/ 안전교육

## 7) 평가

1. 다음은 필리핀 준비학습에서 진행된 것들입니다. 각기 도움이 된 점, 보완했으면 좋을 점을 적어주세요.

### 1) 모금활동

모금활동이 너무 빠썰다.

활동을 다양하게 해서 하나가 망해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학기 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모금활동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

서로 협력을 더 잘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필리핀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사전 탐색이 필요하다.

처음 해본 것이여서 잘될까 걱정했는데 막상 너무 잘 돼서 자신감을 가졌고, 처음에 의욕이 없어서 아쉬웠다. 처음부터 준비시간을 줄이고 바로 모금활동을 해서 보람을 느끼면 좋겠다.

우리가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가가야 하니 도움이 된 것 같다.

처음해보는 거라 사실 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았다. 좋은 시도였던 것 같다. 앞으로 더 다양한 모금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일찍부터 준비했으면 좋았겠다. 그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미리 공부하게 돼서 좋았다.

자금마련에 도움이 되었고, 모금활동도 어느 정도는 사회체험?... 하튼 그런 쪽으로 배운 점이 많아서 좋았다. 하지만 우리가 왜 돈을 모아야하는지 처음부터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준 후 했으면 좋았겠다.

활동기금마련을 직접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열심히 하게 된다.

좀 더 일찍부터 감을 잡고 모금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좋았겠다.

모금도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 여행을 왜 가고, 가서 무엇을 하는지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모듬별 준비학습

준비를 대충한 것같아 아쉽다.

역사도 중요하지만 문화도 정말 중요하다. 트라이시클 가격까지...

6명이 적당하다.

역사, 지리, 문화를 알고 가서 도움이 된듯하다. 하지만 막상 필리핀에 와서 다시 배운 것을 구체적이게 배웠기 때문에 준비학습을 조금 줄이고 모금활동이나 공감만 세에 더 비중을 두면 좋겠다.

필리핀 역사 공부는 좋았는데 다른 나라 역사와 연계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  
소단위로 사전 공부하는 것이 좋았다. 특히 영상보는 게 좋았다.  
다큐도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주변국은 딱히 할 필요가 없는 듯...

### 3) 공감만세와 국내 공정여행 및 강의

국내공정여행은 준비단계로 정말 좋았다.

공정여행 체험으로 좋았다.

생각보다 좋았다. 일정을 2박3일이나 3박4일로 늘리면 좀 더 공정여행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국내공정여행은 필리핀이동학습에 있어 꼭 필요하다. 공정여행이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과 의미부여를 하게 해준다.

여행과 관광을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필리핀 가기 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몰랐는데 강의와 국내공정여행 때문인지 감을 조금 잡을 수 있었다. 공감만세와의 준비기간에서 조금 더 친해지고 필리핀에 가면 좋을 것 같다.

### 4) 필리핀 이주여성(수셋 썸)과 함께하는 필리핀 문화 익히기

필리핀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음식 만들기는 다른 음식도 더 배우면 좋겠다. 게임도 여러 곳에서 써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음식만 좋았음. 다른 건 할 필요 없다.

미리 체험하는 것은 좋았으나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동요배운 것이 도움이 되었다.

뭘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판شین나 동요를 배우고 필리핀에 가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모둠별로 필리핀이주 여성을 인터뷰 해봐도 좋을 것 같다.

### 5) 아시아 역사 강의와 발제

내가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발제는 무의미했다.

왜 했는지 이해는 안되지만 좋음.

크게 도움이 되는 것같지 않다.

필리핀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필리핀이 더 잘 보인다.

힘들었다.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필리핀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쓸데는 없었지만 아시아에 관한 지식이 늘어서 좋았다.

발제보다는 강의가 아시아의 역사를 알아보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필리핀 현지에 왔을 때 막 도움이 되거나 떠오르지는 않는다.

확실히 알고가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진짜 좋은 거 같다.

6) 그 외(교재, 성교육, 안전교육)

있어서 나쁠 건 없다.

생각보다 중요한 과정 중 하나 일 것 같다.

선배들의 강의도 있으면 좋겠다.

문화충격을 막을 수 있었다.

성교육을 좀더 하면 좋겠다. 생각보다 필리핀과 한국의 성 차이가 컸다.

바공실랑안의 문화를 알 수 있었다.

쓸데는 없었지만 나름 괜찮았다.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 게이라던지 빠끌라라는 것을 보고 별로 당황하지 않았다.

성교육이 중요하다. 안전도 나름 괜찮았다.

교재는 내가 별로 안봐서 그런지 별로 필요없는 것 같다.

미리 우리와 다른 성에 대해 공부하고 가서 필리핀에 가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화를 받아들인 것 같다.

2. 필리핀 준비학습에 넣었으면 좋을 것?

적당하다.

영어수업... 뽁췌게...

제3의 성, 물가, 식습관, 사회구조, 지역특성 등 우리가 가는 곳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체력훈련

따갈로그어 강습, 공정여행 오리엔테이션

따갈로그어 정리 책자 만들기?

생활영어, 따갈로그어 강습... 그리고 우리가 갈 곳들에 대한 현장감 있는 교육

※ 교사평가

- 필리핀 역사·문화·지리와 관련된 자료(고두환씨 기사모음, 다큐멘터리)와 같은 정보들을 모듈별로 학습하는 것이 팀웍 다지기나 해외이동학습에 대한 주체적인 준비, 촉박한 필리핀 준비 일정 속에서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전체적으로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 아름다운 재단에 기금 신청서를 학생들 스스로 써 본 것은 성패를 떠나 신청서 작성 라는 자체적인 경험과 더불어 해외이동학습 준비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모금활동은 해외이동학습 준비에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 필리핀 사회와 한국 사회를 연결한다는 의미 부여, 필리핀에서 진행될 활동들에 대한 기대와 탐구, 거리 모금 자체에 대한 경험 등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었다.
- 국내 공정 여행은 공감만세와 호흡을 미리 맞출 수 있다는 점과 공정 여행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팀웍 다지기 등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 모금활동 준비와 진행 자체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과 우리들의 활동 자체에 대해 탐구, 이야기 나눌 시간이 부족했고, 아시아 근현대사 강의와 모둠별 발제를 통해 '평화' 라는 여행 기조와 의미를 부여하는데 미흡했다.

#### 4. 평가

##### <마닐라>

숙소	기간	프로그램
아시아 브릿지 인 필리핀	3박 4일	필리핀 오리엔테이션 + 데니스 머피 강의 마가티와 아얄라 박물관 커뮤니티 지도 만들기

##### <학생평가>

1. 필리핀 해외이동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적당했는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8	1		
남		6	3		

이유는?

딱 적당했다.

필리핀의 중요한 흐름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었다.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고 들어간 것이 도움이 되었다.

2. 바공실랑안에 들어가기 전 필리핀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들어가

기 적당했는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1	8			
남	2	5	2		

이유는?

sm몰, 강의, 아얄라박물관, 오가는 길에 본 밖갈 풍경이 충분한 문제의식을 갖게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알고가야 바공실랑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거 같다.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문이 조금씩 생겨났다.

가는 길에 도로 1개를 사이에 두고 보이는 집들의 생김새 차이

사진이나 인터넷, 책으로 봐왔던 필리핀의 빈민촌이 가득했고 굉장히 열악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마가티와 아얄라박물관을 보니 필리핀사회의 문제의식 가질 수 있었다.

<교사평가>

- 필리핀 사회의 이모저모와 문제점 특히 빈부격차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 가장 좋은 장소와 프로그램(기다리면서 알아나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기 전에)
- 공감만세 코디의 필리핀 사회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음, 나도 그렇지 못했음(아직 왜 나라가 그 모양인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음)
- 아얄라 박물관의 경우 필리핀의 역사를 모형으로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어 필리핀의 역사에 대해 짚고 넘어가면 좋을 듯
- 올 해 인트라무로스 일정이 빠졌는데(시간·체력 상) 가면 좋겠음, 아시안 브릿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

<바공실랑안>

숙소	기간	프로그램
홈스테이	7박 8일	일일교사(시티오 바깥, 바카스-Area C) 풍물공연 및 체험/ 종이 접기/ 한국 노래 부르기 연대활동(테이블 만들기·급식활동·맹그로브와 과실나무 심기) 교류활동(인터뷰·BSYF와 마음나누기·문화축제)

<학생평가>

3. (1) BSYF- 잘 어울릴 수 있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6	3			
남	7	1		1	

이유는?

그 친구들이 너무 활발해서 안 어울릴 수가 없다.

굉장히 활발하고 잘 논다, 감당하기 힘들다.

관심사와 나이가 비슷, 성격이 적극적, 같은 집에서 생활

활기찬 성격과 하루종일 붙어다니기, 비슷한 또래여서...

게이를 잘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의 성향이 나와는 많이 달라 잘 어울릴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2) BSYF의 활동과 BSYF 멤버의 삶을 지켜보고 이해·공감할 수 있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2	6	1		
남	1	3	1	4	

이유는?

같이 자고 24시간 붙어있어서 이해와 공감은 너무 쉽게 하게 되었다.

홈스테이와 나눔나누기가 큰 영향을 준 듯...

진지한 대화를 못해서 아쉽다.

왜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못 물어봐서 아쉽다.

같이 여러 활동을 하며 청년들이 지역을 위해, 나 혼자 아닌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었다.

나보다 못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는 게 신기했다.

그들이 무얼 활동하는지 잘 보지 못했지만 삶을 엿볼 순 없었다.

활동은 같이 했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일은 볼 수 없었다.

바공실랑안을 더 나아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착실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너무 같이 놀기만 했다.

(3) 가이드·안전 역할을 잘 수행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5	3	1		
남	6	3			

이유는?

첫날은 잘 돌아다녔지만 설명은 잘 해 주지는 않았다.  
 항상 같이 있어서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 덕에 안전에 위협을 받은 적은 없다.  
 위험 할 틈이 없었다. 다만 bsyf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너무 느린 것 같다.

4. (1) 홈스테이- 잘 어울릴 수 있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4	4	1		
남	3	2	2	2	

이유는?

밥만 같이 먹어도 친해지기 쉬운데 같이 살다보니 정말 말할 기회도 많고 같이 있을 시간도 많아 잘 어울릴 수 있었다. 내 홈스테이 가정보다 데니스 가족과 더 친해졌다.

가족들도 나에게 대한 거부감이 없고 나도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나는 데니스집에 더 오래있어서...

홈스테이 생활도 그들의 형편, 가족, 생활, 식생활을 알 수 있었고 bsyf이외 생활이라던지, 언어의 장벽으로 알지 못했다.

친절하고 생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려고 노력했다.

(2) 그들의 일상에 녹아든 지점과 그렇지 못한 점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5	2	2	
남		2	5	1	1

이유는?

대접받는 입장으로 살았지만 충분히 그들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 좋았는데 삶에 대해 얘기해보지 못한 게 아주 아쉽다.

생활적인 면 이외에는 하나도 알지 못했다.

밥 먹는 시간도 다르고 우리 활동시간도 달라서 삶에 녹아들진 못했던 것 같다.

웬지 방 하나를 내주고 자기들은 다른 집이나 거실에 용기종기 자서 일상에 완벽하게 녹지 못함.

우리가 손님 같아서 ...

수면시간, 식사시간 외에는 머무는 시간이 적어서 구분을 하기 어렵다.

우리끼리 활동이 많아서 긴 시간 함께 어울리진 못했다.

그냥 다 같이 집에서 농구 보기?

그들의 성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성향도 나와는 달라 잘 어울릴 수 없었다.

5. (1) 일일교사(시티오 바깥, 바카스·Area C)- 준비가 충분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2	3	4	
남		3	5	1	

이유는?

너무 갑자기 한 티가 난다. 좀 더 준비를 해야 할 듯...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 준비를 잘 못했다.

준비에 있어 부실한 수업이 있었다.

즉흥적인 면이 필요했다.

현장에서 우리끼리 우물쭈물하고 그 자리에서 활동을 결정했다.

가기 전에 아이들의 연령 대라던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해 먼저 준비를 하기가 어려웠다. 거의 다 즉석으로...

(2) 프로그램이 잘 기획됐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2	4	2	1	
남		6	3		

이유는?

풍물은 정말 잘 되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이 대와 잘 맞았다.

프로그램은 좋았으나 준비가 부족했다.

풍물 공연이라던지 노래, 한국을 잘 알리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해주기에 좋았다.

(3) 활동지역 및 시간은 적당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1	7	1		
남		5	2	2	

이유는?

활동 지역이나 시간은 완전 괜찮았다. 좀 힘들었던 적도 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더 있었으면 힘들거나 막막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활동지역이 너무 덥고 시간은 너무 길었다.  
 어린이집 갈 때 너무 멀어서 힘들었다.  
 area C는 교실이 없어서 힘들었다.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해서 힘들었다.  
 그곳 시설이 좋지 않아 금새 지침  
 지역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잘 간 듯...

(1) 연대활동(테이블 만들기·급식활동·망그로브와 과실나무 심기)- 준비가 충분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2	3	4	
남	1	4	2	2	

이유는?

만드는 방법이나 설명이 없었다.  
 망고나무 심기 힘들었다.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  
 준비는 bsyf친구들이 다 해서 우리는 한 게 없다.  
 테이블의 경우 우리가 하는 것없이 그들이 하는 걸 보고만 있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몰라 답답했다.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법한 활동들이었다. 아무래도 몸이 힘든 활동이  
 다보니 다들 축축 처져있고 계속 쉬었다.  
 활동 전에 우리끼리 준비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좋겠다.

(2) 프로그램이 잘 기획 되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6	3		
남	1	6	2		

이유는?

기획은 잘 된 것 같다. 덕분에 활동을 하면서 뿌듯함을 계속 느낄 수 있었다.  
 너무 얽혀진 느낌이었다.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프로그램  
 우리의 조그만 보탬으로 그들이 행복해해서...  
 테이블 만들기는 정말 필요한 활동이었다. 망그로브나무가 홍수피해를 막아줄  
 지는 모르겠다.

그 곳에 필요한 활동을 잘 한 것 같다.

준비는 bsyf 친구들이 다 해서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다.

(3) 활동지역 및 시간은 적당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8	1		
남		5	2	2	

이유는?

점심을 늦게 먹게되는 때는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다.

거리가 멀고 덥고 활동시간은 길었다.

솔직히 너무 멀다. 망고나무 심을 때가 정말 힘들었다.

적당히 힘들고 그 뒤에 쉬는 게 좋았다. 오래했으면 의욕이 떨어졌을 듯...

맹그로브와 과실나무 심기는 생각보다 양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한게 없는 것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시티오 바깥 활동, 일일교사 비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6. (1) 교류활동(인터뷰·BSYF와 마음나누기·문화축제)- 바공실랑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공감할 수 있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3	6			
남	4	4	1		

이유는?

게이들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너무 많았다.

정미 많이 들었고, 공감할 수 있었다.

너무 놀기에 바빠서 그런 것은 못보고 산 것 같다.

인터뷰가 생각보다 삶을 공감할 수 없었지만 축제나 같이 부딪히는 생활면에서 삶을 차차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공연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다.

춤과 노래 아주 즐거웠고 인터뷰 또한 그들의 삶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들의 환경에 대한 여건과 이웃끼리의 가까움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놀이를 하는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제 3의 성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의 축제문화도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가 확인이 도움이 된 듯...

특히 문화축제가 인상 깊었다. 에너지 넘치고 지치지 않는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빠끌라를 이해할 수 있었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문화를 잘 알 수 있었다.

(2) 다른 프로그램과의 비중과 순서는 적당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1	6	2		
남	1	5	3		

이유는?

비중도 조금 아쉽고 순서도 축제를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나무심기와 시티오바깥을 묶는 게 좋을 듯  
 문화교류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바공에서의 활동이 가장 알차고 뿌듯하고 좋았다.

<교사평가>

- 제천간디학교의 학교철학이나 분위기, 교육방침(예> 공동체성-먹고, 나누고, 뒷정리 등을 함께 함, 생태성-친환경제품사용, 일회용품 자제...)을 미리 바공 실랑안 쪽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 학생들의 개인 수저, 젓가락, 컵, 물통 사용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 간단한 화기가 있으면 각종 연고 만들기 프로그램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상처나 피부용 연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바공실랑안에서의 이동이 제약이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BSYF친구들과 반드시 동행해야하는 방침으로 인해 BSYF친구들의 일정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집에 꼼짝없이 있어야 한다.
- BSYF가 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홈스테이 가정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걸쳐쇼도 좋지만 조용하게 정리하는 자리도 필요.
- 일일교사활동이 필리핀 준비단계에서 잘 기획되어야 현지단체에 끌려 다니는 느낌을 막아주겠다.

<키양안>

숙소	기간	프로그램
홈스테이	8박 9일	일일교사(키양안 초등학교, 나가카단 초등학교) 종이 접기/ 치약 만들기/ 팝업 카드 만들기/ 축구 연대활동(아시아 평화도서관 책 등록 및 걸개그림, 나가카단 도서관 보수활동, 추수돕기, 나무심기)

		교류활동(가계도 그리기, 체험 삶의 현장·인터뷰, 시트모와 소풍)
--	--	--------------------------------------

8. (1) 씨트모- 잘 어울릴 수 있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1	4	4	
남			4	3	2

이유는?

나이차이도 있고 성향도 있어서... 바공처럼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홈스테이도 안해서...

같이 있는 시간이 적었다.

교류활동이 너무 뒤에 있었다.

어울릴 지점이 많지 않았다.

(2) 씨트모의 활동과 씨트모 멤버의 삶을 지켜보고 이해·공감할 수 있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3	2	3
남			4	5	

이유는?

활동은 좋았으나 시트모 멤버들의 삶을 지켜 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고 그들의 삶을 지켜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시트모가 계단식 논을 복원하고 지역을 위해 힘쓰는 것은 알 수 있었는데 돈도 안되는 시트모활동을 하며 사는 삶은 잘 모르겠다.

그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약간 힘들었다.

같이 홈스테이를 하지 않았고 활동도 같이 많이 하지 않아서 공감하기 어려웠다. 사실 나이도 잘 모른다,

(3) 가이드·안전 역할을 잘 수행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2	3	3	1	
남		3	2	3	1

이유는?

붙어있는 날이 별로 없음.

확실히 자유로워서 좋았다. 딱히 가이드나 안전 역할을 한 일이 없는 것 같다.

키양안 지역 자체가 위험하지 않았다.

일일체험현장 할 때도 그렇고 같이 다니는 것도 없고 사실 잘 모르겠다.

9. (1) 홈스테이- 잘 어울릴 수 있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1	6	2		
남	3	2	4		

이유는?

할머니가 우리와 많이 친해지고 싶어했고 홈스테이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좋았다.

같이 있을 시간이 조금 많았지만 피곤해서 일찍 자거나 그 쪽에서 할 일이 많고 어딜 가서 잘 놀지는 못했다.

홈스테이에서 너무 잘 해주셨는데 바공처럼 또래가 없어서 아쉬웠다.

바공때와는 달리 홈스테이 사람들과 어울릴 생각보다는 일정이 끝나면 방에 들어가 쉴 생각만 했다.

우리 방과 다른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 확연하게 분리되어 자주 얼굴을 마주보기 힘들었다.

나이차이가 많이 났고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다가가기 어려움.

(2) 그들의 일상에 녹아든 지점과 그렇지 못한 점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2	5	2	1
남		2	4	1	2

이유는?

웬지 들어와서 방에서 쉬고 밥만 먹고 하느라 가족들과 뭔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별 교류가 없었다.

함께 얘기할 기회가 적었다.

식생활, 카톨릭 가정의 문화, 후드후드, 독수리춤 등을 접할 수 있었고 대가족 이다보니 다 같이 있는 것을 보기 힘들었고 나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기본적인 그들의 생활조차 알지 못했다.

같이 할 시간이 적었다.

밥을 같이 먹었다. 가끔 빨래 널다 마주쳤다. 그러나 활동을 왜 하는지 같은 질문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

인터뷰를 철저하게 해서 그들을 알아봤으면 좋았을 듯...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져있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겠다.

10. (1) 일일교사(키양안)- 준비가 충분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3	5	1
남	1		6	2	

이유는?

너무 즉석에서 결정해서 한 듯

애들과 의견이 안 맞아 힘들었다.

역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당장 수업시간에 너무 허둥댔다.

바공에서 많이 해서인지 긴장감이 너무 없었다.

바공때보다는 준비가 안 되었다.

일일교사를 많이 못한 것도 있고 축구수업은 아예 못했다.

(2) 프로그램이 잘 기획됐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7	2		
남	2	1	5	1	

이유는?

하루 종일 도서관 활동만 했던 날이 힘들었다.

준비가 위태위태했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관심 가질만한 프로그램을 잘 짰다.

준비가 부족했다.

물량이 너무 부족했다.

솔직히 무시당한 느낌이었다.

(3) 활동지역 및 시간은 적당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5	1	3	
남		6	2	1	

이유는?

학생들이 수업을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너무 노는 시간이 많아 오히려 축축 쳐지고 뭔가 하려는 마음도 별로 들지 않

았다. 그러나 평화로웠다.

체력이 버텨준다면 시간을 좀 더 늘려도 좋겠다.

키양안은 활동하러가는 거리가 멀고 힘들다.

11. (1) 일일교사(나가카단)- 준비가 충분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6	2	1	
남	1	1	6	1	

이유는?

멀어서 힘들고 추수할 때는 정말 힘들었다.

(2) 프로그램이 잘 기획됐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1	4	1	3	
남	1	2	5	1	

이유는?

사전조사도 제대로 안되어서 정보가 없었다. 그래서 기획이 더 어려웠다.

도서관 만들기가 좋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잘 짰다.

치약 만들기가 기발했다.

(3) 활동지역 및 시간은 적당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1	5	2	1	
남		6	3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거라고 생각하니 시간이 아깝지 않고 뿌듯했다.

시간이 적어서 아쉬웠다. 2번 정도 방문하면 아이들과 더 친해졌을 것 같다.

오후에는 힘들었다.

12. (1) 연대활동(아시아 평화도서관 책 등록 및 걸개그림, 나가카단 도서관 보수활동, 추수돕기, 나무심기)- 준비가 충분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2	2	5		

남	1	4	3	1	
---	---	---	---	---	--

이유는?

잘 모르겠다. 조금 힘들었다. 그냥 키양안이 힘들었다.

사실 준비해간 것이 없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수업에 차질이 있었지만 나름 잘 되었다.

준비는 필요 없는 활동이었지만 걸개그림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활동을 했다.

우리가 준비했다기보다 끌려 다니는 느낌이 더 강함

(2) 프로그램이 잘 기획 되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2	4	3		
남	2	3	4		

이유는?

걸개그림, 책 등록, 보수 활동, 추수, 나무심기 모두 큰 도움이 된 듯하다.

프로그램들은 좋았던 것 같다.

추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

도서관에서 정말 필요한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

(3) 활동지역 및 시간은 적당했는가?

적당했다.

나무심기 같은 경우 일도 매우 적었고 오히려 트레킹에 의미를 둔 것 같다.

13. (1) 교류활동(가계도 그리기, 체험 삶의 현장·인터뷰, 시트모와 소풍)- 키양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공감할 수 있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2	3	2	2	
남	3	6	1		

이유는?

가계도 그리기 같이 아족들과 하는 활동이 늘면 좋겠다.

체험 삶의 현장이 도움이 되었다.

필리핀 아저씨들의 일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현장감 넘치는 삶의 현장, 인터뷰로 키양안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알 수 있

었고 제일 인상 깊고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었다.

(2) 다른 프로그램과의 비중과 순서는 적당했는가?

적당했으나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

교류활동을 맨 앞으로 넣었으면...

<교사평가>

- 일일교사 활동을 줄이고 좀 더 필리핀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하며 느끼는 시간으로 잡으면 좋겠다. 부수적으로 언어교육에 대한 효과도 있는 듯하다. 예> 홈스테이가족 가계도 그리기, 일일 체험 삶의 현장, 시트모와 친해지기, 인터뷰 프로젝트, 근처 소도시 라가웨를 활용하기
- 시트모 친구들과 친해지기... (아이들이 바공실랑안의 기억이 너무 강해 키양 안에 와서도 그쪽 친구들만 그리워하기도 하고, 비교적 시트모와 나이차이도 있어 쉽게 친해지지 못했다.) 모둠별로 시트모 멤버가 배정되어 한나절정도 소풍을 진행했고 '시트모에게 한국동요 가르쳐주기' 미션을 수행하도록 했다. 즐겁게 잘 보냈다.
- 계단식 논과 관련한 활동이 적었다. 농부들과의 접촉면, 논 일손 돕기를 좀 더 늘리면 좋겠다. 바이니난마을이나 빌롱마을에서 1~2일정도 묵으면서 활동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 계단식 논에 대한 의미부여, 적정기술 적용

<바타드>

숙소	기간	프로그램
사이먼 산장	2박 3일	바타드 계단식 논 탐방 및 탑피아 폭포 전통 몸바키 축제 계단식 논 보수 활동

14. 계단식 논을 감상 및 자연·문화 체험에 대한 만족도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2	3	3	1	
남	4	4	1		

이유는?

사실 엄청 기대를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비슷하여 아쉬웠다. 하지만 그 큰 광경은 불만했다.

정말 아름다웠고 상상 그 이상이었다.

영상과 공부를 하고 간지라 굉장히 웅장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 실망이 컸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없었음. 그냥 '신기하다'정도?

계단식 논에서 이동할 때 너무 힘들어서 계단식 논 볼 생각이 안 들었다.

아직 파괴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펼쳐진 바타드에서 계단식 논 담을 따라 걸으며 내려다 본 풍경이 환상적이었다.

산장에서 보이는 풍경과 직접 갔던 탐피아폭포가 매우 좋았다.

### 15. 계단식 논 보수 활동 내용 및 기간은 적당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2	4	3	
남		2	6	1	

이유는?

계단식 논 복원을 별로 한 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

사실 더 있었으면 힘들었겠지만 할수록 뿌듯한 것 같다.

너무 적다. 좀 더 많았으면...

딱히 도움이 된지 모르겠다.

그들에게 방해만 된 것 같기도 하다.

삽질,,, 노가다,,, 기술적인 면이 필요해서 아쉽다.

시간이 너무 짧았지만 재미있었다.

막상 계단식 논 보수를 돕기 위해 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었다. 그저 돌 틈에서 자라난 잡초들만 뽑았다. 기간은 너무 적었다.

보수라기엔 너무 짧게 발만 디어 보는 느낌이라서 체험 같았다.

### <교사평가>

- 여유로운 분위기, 계단식 논 풍경에 묻혀 지내는 것 자체가 자연체험인 것 같다.
-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과 그것을 지키려하는 모습, 상업화되는 모습 자체가 좋은 경험일 수 있다.
- 바타드의 사이먼 산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산장인데 계속 협력해도 괜찮을지

### <탐아완>

숙소	기간	프로그램



탐아완 예술마을	4박 5일	드림캐쳐 만들기 전통 춤 배우기 예술가 인터뷰 바기오 자유 여행
----------	-------	--

16. 문화 체험에 대한 만족도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1	6		2	
남	1	5	2		1

이유는?

미술관

문화체험은 좋았다.

양은 적당했으나 전통을 살리는 활동이면 모를까 드림캐쳐만들기 같은 것이 너무 뜬금없다.

아직은 좀 맛보기 느낌이라 아쉽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배워 본 것은 좋았다.

이동 범위도 작고 다양한 활동

체계적인 수업으로 머리에 쏙쏙

다양하지 않다.

문화체험을 기대하고 왔는데 예술교류가 없어 많이 아쉬웠다.

17. 교류활동(예술가 인터뷰) 내용 및 기간은 적당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여	3	2	4		
남	1	4	4		

이유는?

조금 뜬금없이 정해졌다. 준비시간이 좀 더 충분했으면 좋을 듯...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더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났으면 좋았겠다.

부담스럽지 않게 예술가들의 삶을 알 수 있을 만큼 딱 적당했다.

질문을 즉석에서 준비해서 조금은 부신했다.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음악관계자를 인터뷰했어도 괜찮을 것 같다.

18. 바기오 자유 여행을 비롯한 자유 시간은 적당했는가?

	아주 적당	적당	보통	조금 안 적당	아주 안 적당
--	-------	----	----	---------	---------

여	3	6			
남	3	3	2	1	

이유는?

걷는게 힘들었다.

여유롭고 좋았다.

딱 하루 재미있게 잘 여행하고 왔다. 그 외의 자유시간은 약간 늘어지는 감이 있었지만 잘 쉬었다. 숙소가 몇 명씩 분리되어 있다면 휴식에 더 도움이 될것 같다.

자유롭고 여유롭고 널널해서 좋았다.

기획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

#### <교사평가>

- 상업화된 공간, 자연스런 예술가들과의 접촉 없음, 관광지. 괜찮을지?
- 바기오 모듬별 자유여행은 필리핀 도시 둘러보기와 두마게띠에서 모듬별 자유여행의 예행연습으로 적당, 홈스테이까지 고려?

#### <두마게띠>

숙소	기간	프로그램
필리핀 간디학 교	14박 15 일	모듬별 2박 3일 자유여행(씨퀴오르 섬, 아포 섬) 워크샵(반다망가, 대나무춤, 공예품 만들기, 니기론) 활동(시타디니 고아원, 두마게띠 탐방, 하발하발(계속 군것질 하기) 자연체험(오슬롭, 수밀론, 다우인) 필리핀 발표 준비와 면담, 필리핀 평가와 글쓰기(필리핀과 한국의 차이점과 공통점, 필리핀에서 내가 받은 것과 나누어준 것, 공정여행하면서 느낀 점·좋았던 점·보완할 점, 평화여행하면서 느낀 점·좋았던 점·보완할 점)

#### <교사평가>

- 모듬별 자유여행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여행을 기획하기 어려웠으나 자연 체험하기에는 좋았음
- 워크샵 일정, 숙소에서 조용히 평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어려웠다.
- 전체 자연체험 2~3번 정도, 모듬별 2박 3일 자유여행 정도의 자연체험 적당하다.
- 영어수업 없이도 괜찮았다.

19. 전체 필리핀 해외이동학습 만족도는?

	아주 만족	만족	보통	조금 안 만족	아주 안 만족
여	4	4	1		
남	3	6			

### <전체적인 평가>

- 필리핀 준비과정 (공감만세와 국내공정여행, 모금활동, 모듬별 필리핀의 역사·문화·지리 준비학습, 필리핀 이주여성에게 배우는 필리핀 문화, 아시아 근현대사 강의와 모듬별 발제, 안전교육과 성교육)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았다. 모금활동은 필리핀 해외이동학습을 스스로 꾸려간다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재단·유네스코와의 접촉 등 한국시민사회와 필리핀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아시아 근현대사 강의와 모듬별 발제는 평가가 엇갈려 고려해야겠다(책을 많이 사놔서 고민).
- 공감만세의 공정여행은 필리핀 해외이동학습에서 '관광'의 요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평화여행 기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 공감만세와 현지단체의 오랜 기간 연대하고 협력한 힘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국제 연대의 멋스러움, 현지에서 우리의 요구를 넘죽넘죽 받아주는 탄력성, 안전, 필리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왔다.
- 공감만세 코디의 영어능력이 확보되면 영어교사가 가야한다는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그래도 우리 영어 쌤이 붙으면 더 좋다), 한국어로 소통이 되는 어른이 추가되어 안정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긴장감(공정여행에 대한)도 조성된다.
- 장기간 홈스테이에서 노렸던 필리핀인의 일상에 녹아들기는 실패, 홈스테이 가정과의 프로그램이나 현지인들과 일상을 공유할 만한 자유시간을 확보해야겠다.
- 우리도 현지단체와 사람에 대해 더 이해하고 알아보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현지단체에 우리에게 대해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초반부터 뻥센 현지인들과의 만남은 영어수업 없이 영어학습 효과를 가져왔으며, 외국어가 소통의 도구로서 얼마나 필요한지 강한 동기부여가 됐다. 해외이동학습에 영어 수업은 없어도 무방하며 필리핀 준비과정에서 따갈로그어 수업을 해달라고 하는 학생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다.
- 예술체험이 기대보다 약했음, 켐베치기·드림캐쳐 만들기를 넘어서는 더 전통

적이면서 감수성을 깨워줄 것이 있을까?

- 공감만세 4주 + 자연체험 및 정리기간 2주 괜찮았다. 하지만 뒤의 2주를 어  
디서 할 것인가는 고민으로 남음, 필리핀 간디학교 자체는 정리하는 시간과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필간 학생들 때문에 들뜨는 분위기, 숙소,  
필간의 간디스럽지 않은 면).

- ① 필·간에 가되 워크샵을 줄이고 안정된 숙소를 확보 혹은 며칠은 두마게띠  
시내의 조용한 숙소에서 지내기 (무난)
- ② 두마게띠는 가지만 필리핀 간디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두마게띠에서 2주(약  
간 모험)
- ③ 보홀에서 2주(사전답사 필요)
- ④ 그냥 필·간에서 2주(조용히 글 쓰고 평가하며 정리하는 것은 약간 포기)

## 2014 필리핀 해외이동학습 운영평가

1. 예년과 달리 간디교사 3인, 공감만세 코디 1인, 인솔교사 4명이 진행했습니다. 교사  
간의 역할분담, 교사-학생간 소통에 있어 불편함이나 혼란은 없었나요?

예. 적당하고 좋았다.

쌤들이 많아서 오히려 소통하기 편했다.

쌤들끼리 의견을 맞춰줬으면... 무슨 일에 있어 서로 말이 다르니 혼란스러웠다.

많아서 좋았다. 특히 술 먹는 게 방지됨.

조화가 적절했던 것 같다.

많을수록 좋은 것 같다. 소통의 문제는 쌤들의 수와는 상관없이 서로가 노력해야 할 듯.

너무 잡아두는 것 같았다.

2. 반장, 부반장을 중심으로 한 전체 활동 기획 및 진행은 잘 되었나요?

그럭저럭. 반장부반장 수고했어요.

노력한 것에 비해 살짝 아쉽다.

중등 때에 비해 확실히 잘 되었다.

이별과 만남이 많다보니 파티를 해주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잘 된 것 같다.

3. 모둠별 활동은 잘 되었나요? (모둠장 리더쉽, 역할분담, 만족도)

아주 좋음

겉보기에는 아주 좋았으나 속은 매우 좋지 않았다.

모둠원들의 의욕이 많이 부족했다.

너무 모둠장에서 역할이 치우쳤던 것 같다.

분위기도 좋았고 역할분담도 잘 된 것 같다.

모둠끼리 친해져서 만족도가 높다.

모듬별 활동 만족도는 낮다. 누구든 추진력 있게 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다들 귀찮아 했다.

4. 모듬별 활동이 의미있게 진행되었나요?

그런 것 같다.

인터뷰하거나 소수 인원으로 여행가는 것이 좋았다.

우리 모듬이 귀찮은 거 싫어하고 대충하는 느낌이 있어서 기획은 하면서 걱정됐지만 막상 활동 할 때는 잘 진행되었다.

5. 하루나누기는 잘 되었나요?

중간 중간 생략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잘된 듯... 필요하긴 한 것 같다.

하루나누기를 통해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에는 약간 머뭇거리기도 했는데 후반에 들어서는 나름 자기 느낌 점을 잘 말했다. 교사-학생이 전부 이야기하려니 좀 길었다.

할 때는 잘 되지만 너무 자주하면 귀찮음.

하루나누기가 땡길 때는 좋은데 정말 귀찮고 졸릴 때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여행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형식은 꼭 딱딱하게 하지 않아도 좋을 듯하다.

6. 또 다른 전체 일정(아침열기, 아침독서 등)이 필요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 상당히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모이는 건 좀...

필요 없다.

제대로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아침열기 같은 경우는 다른 조의 일정공유를 같이 들으면서 소통이 되어 좋은 것 같다.

## 5. 글쓰기

### 권효연

#### 한국과 필리핀의 공통점, 차이점

한국과 필리핀의 공통점은 ‘등쳐먹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상 어디를 가든 사람들 위에 서서 돈 먹는 부자들은 다 똑같다. 필리핀 국토의 50%를 19개의 가문이 소유하고 있고, 한국도 필리핀 보다는 조금? 나은 듯하지만 도토리 키재기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내가 직접 본 필리핀은 한국과 닮은 점 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았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바공실랑안 사람들을 보고 내가 느낀 것은 사람들이 참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점이었다. 물론 완전히 도시가 되어버린 마닐라 시내는 다르겠지만, 나는 바공실랑안 말고도 키양안, 바기오, 두마게티에서도 같은 생각을 했다.

필리핀 사람들은 참 잘 웃는다. 지나갈 때 마다 얼마나 많은 인사를 들었는지 모른다. 한국에서 들은 ‘안녕’이라는 말 보다 필리핀에서 들었던 어색한 ‘안녕~’들이 훨씬 수가 많을 것이다. 물론 처음 보는 외국인인, 드라마에나 나오던 한국인이 신기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 왔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굳이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 호주사람들이 왔다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어쩌면 그래서 외국인이 말 거는 걸 무서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영어울렁증 같은 증상들이 생긴다. 한국에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도 모른다.

또 필리핀의 시장이나 교장선생님은 한국보다 권위적이지 않았다. 난 정말 안산시장님께 찾아가서 친구처럼 웃거나 웃긴 표정으로 사진 찍기 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여기 바공 친구들은 시장님께 찾아가서 진짜 친구처럼 안기도 하고 웃긴 표정으로 사진도 찍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신기했다.

내가 만난 시장과 교장선생님이 다 여자라는 것도 신기했다. 진짜 한국에서는 교장선생님, 시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당연하게도 남자였고 여자일거

란 생각은 아예 해 본적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까지 내가 본 시장, 교장은 모두 남자 밖에 없었으니까. 거기다 저녁밥을 사라네 아버지가 준비하시는 걸 보고 되게 신기했다. 우리 집에서든 아버지가 밥을 해 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보통 라면, 김치 볶음밥, 고기굽기 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라아빠가 만들어 주신 음식은 시니강이랑 여러 반찬들이었다. 아버지가 평범하게 밥을 한다는 게 정말 새로웠다.

정작 필리핀에 가서는 외국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돌아와 글을 쓰고 있으니 참 많이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덕분에 한국은 왜 그런걸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 다른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달까? 그런 점에서 이번 여행은 의미있었다.

### 필리핀에서 내가 얻은 것, 준 것

바공 친구들에게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다. 필리핀과 한국의 다른 점도 거기서 제일 많이 발견했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쭈뼛거릴 때 먼저 다가와 주었다. 또 바공실랑안이 위험하다고 우리가 가는 곳은 모두 따라왔다. 분명 귀찮았을 텐데 그런 친절을 베풀어 준 바공실랑안 친구들이 고맙다.

우리가 바공친구들과 헤어질 때도,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제 마지막인데 뭐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은 눈곱만치도 없고 그저 우리 생각에만 빠져있었다. 그러나 바공친구들은 노래가사를 복사해서 서로 나눠보며 우리에게 노래를 선물했다. 분명 감사해야 할 점은 우리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주는거만 모조리 받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바공친구들이 우리를 열심히 챙겨주고 열심히 마무리하고 떠나보내는 모습에서 손님은 이렇게 대접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

그곳에서 내가 준 것이라곤 나무심기, 탁자 만들기, 급식활동 같은 우리의 원래 일정 빼곤 그렇게 많지 않아 아쉽다. 그래도 홈스테이 집에서 피곤해도 애들하고 같이 놀려고 노력하고,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란스에게 노래하는 까마귀를 열심히 접어준 건 정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홈스테이에서 나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래서 행복했다.

필리핀에서 나는 원래 짜여 있는 일정들로 많은 것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뭔가 주려고 했다던가, 하는 일정에 대해 열성을 다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키앙안의 종이접기 수업을 하면서 좀 새로운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종이접기 수업을 할 때, 배우는 애들이 막 우리의 행동이나 말들을 몇 번씩 따라하면서 열심히 웃어대길래 되게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뒤에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내가 따갈로그어를 배우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졌다.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애들이 나쁜 애들이고, 우리가 웃기게 생겨서 비웃은 게 아니라 그냥 초등학생들이 흔히 놀 듯이 했을 뿐이었다. 생각해 보면 살면서 처음보는 외국인이 처음 듣는 말을 쓰는데 그게 초등학생 귀에 재밌게 들리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 우리도 테레사가 “애들아~”하는 거 맨날 따라하면서 웃고 떠들었으면서. 굳이 비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웃겼을 뿐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생긴 일이다. 또 그전에 우리와 놀았던 아이들은(그 아이들은 정말 아기들이었다.) 그렇지 않아서 비교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쉽게 오해가 생긴 거 같다.

사실 우리가 했던 일정 속에서 우리가 주었던 일들까지 다 적으면 참 길어진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도움을 주고 왔다기보다는 같이 놀고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한다.

### 평화여행을 통해 느낀 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평화여행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전에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왜 그런지 의문조차 가지지 않았을 것들이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새롭게 보였다. 자기 자리에서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단체나 사람들을 만난 것도 좋았다. 그리고 그 단체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도 이해 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행을 반만 다녀온거나 다름없으니까.

BSYF나 시트모나 둘 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평화로워야 자신도 평화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한다. BSYF는 자기가 살고 있는 바공실랑안은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 탁자 만들기, 홍수예방 나무심기 등을 한다. 시트모는 그 멤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옛날부터 내려져 온 계단식 논이기 때문에 지키려는 것이다.

그건 마치 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과 같은 원리다. 동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고, 그러면 평화로울 수도 없으니까. 시트모의 계단식 논도 같은 이야기다. 내 집이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다만 이 예를 큰 범위에서 실천하고 있는 게 시트모와 BSYF다.

사람들은 결국 모두 이어져 있고, 함께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평화로 우려면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간디철학을 배울 때 왜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나에게 그런대로 힌트를 준 여행이었다.

### 공정여행을 통해 느낀 점, 좋았던 점, 보완할 점

필리핀 여행을 준비하며 우리가 봉사하고 바다도 많이 못가는 공정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솔직히 그런 것보다 그냥 노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직접 와 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렇게 더운 곳에 6주라는 긴 시간동안 의미없이 바다만 간다면 내가 여기서 왜 이려고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을 것이다.

우리가 관광이 아닌 여행을 했던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다. 여행사 가이드랑,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여행을 일로만 느끼는 사람과 함께했다면 결코 즐거울 수 없다. 여행 와서 나만 재미있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게 아니니까. 관광지가 되어버린 바기오를 둘러보다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으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 늘어서 앉아있는걸 보고 기분이 참 이상했다. 그리고 그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진짜 공정여행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공정여행이란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관광을 하면서 지나치는 사람들, 민박집 주인이라던가, 내가 탄 배의 선원들이라던가, 내 여행을 정말 나만 즐거운 여행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계단식 논을 지키는 시트모 친구들과 함께한 것처럼.

이 공정여행을 통해 진짜 여행을 간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나, 언젠가 나 혼자 여행을 갈 때 공정여행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의 여행에서 아쉬운 점은 로빈슨 몰 같은 대형마트를 아무런 생각 없이 막 갔다는 점이다. 골목상권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잘 가지 않는 대형마트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다. 다음 여행에서는 최대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다.

## 김민정

### 필리핀과 한국,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이런 지점을 많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여행을 되돌아보며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글로 나열해 보며 정리 해 보았다. 필리핀과 한국은 다른 나라인 만큼 다른 점도 많았지만 닮은 지점도 꽤 있었다.

먼저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비슷한 점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필리핀과 한국은 예전에 수많은 식민 지배를 받아왔다. 필리핀도 잠깐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고 스페인에게 오랫동안 간섭을 받고 지배를 받아 우리나라처럼 식민 지배를 받아온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다. 필리핀의 대중교통수단인 지프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빈부격차가 정말 심하게 보인다. 우리나라는 삼성이나 현대같은 초국가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19개의 가문이 국토의 50%를 가지고 있고 특히 마닐라의 길거리에서 확연히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었다. 번지르르한 건물들이 있다가도 갑자기 한 구석에 판자촌 마을이 나타났다. 또 한국처럼 사라져가는 문화나 전통들이 많았다. 라이스테라스, 문바키축제, 후드후드.....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지금시대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자연환경도 비슷하다. 바다와 산이 많다. 그리고 한국처럼 쌀이 주식인 나라이다.

한국과 필리핀의 다른 점도 많았다. 필리핀은 한국과는 다르게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많았고, 내가 본 필리핀의 사람들은 다들 인사성도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착했다. 또 더운 나라인 이유 때문인지 다들 느렸다. 식당에서도 마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빠르지 않았고 시간약속을 제때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소수의 성을 무시하고 편견들도 많은데 이곳에선 제3의 성이나 게이 등 성문화에 대해 인식이 자유로워서 쉽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커밍아웃을 하고 다들 잘 섞여 지내는 모습이 나에겐 새로웠다. 필리핀은 한국보다 민영화가 더 많이 된 나라여서 신기하게도 당연히 나라가 관리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개인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 물, 전기, 철로, 공공화장실, 버스, 신호등도 없는 나라였다. 버스가 없어서 필리핀의 대중교통으로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날씨가 습하고 일년내내 여름이라 비가 언제 올지 몰라 항상 우비를 들고 다녀야 했다. 식문

화는 한국처럼 쌀이 주식이기는 하지만 음식이 다 기름지고 야채보다 고기를 훨씬 많이 먹고 음식들이 다 달고 짠다.

이렇게 필리핀여행을 통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한국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 필리핀에서 내가 나누어 준 것과 얻은 것

필리핀에서 내가 성장하거나 얻은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나누어 준 것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필리핀 사람들의 에너지 넘치고 밝은 모습 때문인지 나도 그런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다. 특히 BSYF친구들을 보고 많이 느꼈다. 날씨가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불쾌할 것 같은데 일그러지는 표정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고, 정말 진심으로 다가와 줘서 나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또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일일교사,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만난 아이들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다. 색종이 접기나 사소한 것에 좋아해주는 것에 나도 보람을 느꼈고 순수한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왠지 나도 덩달아 순수해지는 느낌?... 하...하...이젠 아이들이 정말 좋다.(막 매달리면 피곤하긴 하지만...) 처음으로 외국친구도 사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좋은 부모만나서 좋은 조건에서 불편함 없이 사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편안함에 무뎠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질리도록 본 바다와 푸른 산들이 생생히 내 기억, 마음 속에 남아 마음 한구석에 박혀있는 느낌이다. 관광지를 가거나 유명한 곳을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힘이 들고 불편하더라도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고 경험하는 불편한 여행이 더 의미 있고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빈곤과 부를 보고 다 같이 잘살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거리를 던져준 여행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풍물이나 한국전통놀이 등 재능기부, 접해보지 못한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다. 또 필리핀 사람들이 진심으로 다가와서 나도 사람들에게 정도 주고 진심으로 다가갔던 것 같다. 여러모로 필리핀에서의 기억들이 앞으로 살면서 내 삶에 많이 자리 잡을 것 같다. 내가 얻은 만큼 주고 오지 못한 것 같아 조금 후회가 된다.

### 공정여행을 통해 느낀 점, 좋았던 점, 보완할 점

공정한 여행.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공정여행이 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관광이 아닌 여행, 몸이 힘든 여행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것을

공정여행이라고 하나? 또 우리들의 간식을 고를 때,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 필리핀에서 과자나 스낵종류를 다 훑살고 있는 회사(JACK and JILL, MILO)는 최대한 피하신다는 수자 쌤의 말씀에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도 공정여행이구나. 그럼 난 자유 시간 때 마다 유명한 회사 과자를 마구 마구 생각 없이 사먹고 그랬는데.....여행막바지가 되어서 선물을 사고, 남은 용돈을 다 쓰기 위해 평소에는 물건을 살 때 10페소 하나도 따졌었는데, SM몰(엄청나게 큰 백화점 같은 곳)이나 로빈슨 몰(백화점)에서 신이나 예쁜 게 보이면 그냥 거리낌 없이 살 때면 문득 내가 이려고 있어도 되나? 라는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던 것 같다. 공정한 여행을 하러 이곳에 왔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과 소비가 주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봐주세요ㅠ)

공정여행은 무엇이다! 라는 명확한 무엇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여행이 공정여행이라니, 찬찬히 다시 되돌아보았다. 4주간 공감만세와 함께 여행을 하고는 2주간은 깔리까산 필리핀 간디학교에 머무르며 의도하지 않은 관광을 하게 되면서 공정여행과 관광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관광을 할 때면 사실 편하다. 나만 편하면 되고, 물건을 살 때가 아니라면 현지인들과 얘기를 할 기회도 없다. 그래서 마치 티비로 여행 다큐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마음나누기 때 누가 한 말처럼 “여행은 남는 게 있지만 관광은 남는 게 없는 것”인 것 같다.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직접 땀 흘리고, 현지친구를 사귀고 홈스테이를 했던 것은 정말 값진 경험들이었다. 그리고 시티오바깥 공부방이라던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러 갔던 것이었는데, 준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았고 작은 것에도 좋아해 주는 아이들 덕분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지프니, 트라이 시클을 이용하고 마닐라와 바공실랑안에서 빈부격차를 경험하며 필리핀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이번 공정여행에서 보완할 점은 자유여행인 것 같다. 우리가 직접 계획해서 하는 여행이 몇 번 없다보니까 공정여행의 취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유시간이라는 것에 다들 신이 나서 쇼핑이 주가 된 것 같다.

이렇게 공정여행을 경험하며 이런 여행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학교에서 하는 여행 말고도 내가 하는 여행도 몸소 느낄 수 있는 이런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평화여행을 통해 느낀 점, 좋았던 점, 보완할 점

먼저 내면에 평화가 와야지 다른 것도 평화롭다는 말처럼 필리핀은 내 모습

을 많이 되돌아볼 수 있는 곳이었다. 타지에 있다 보니 내 모습들이 하나둘씩 눈에 밝히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새삼스레 느끼고, 붙어 있다 보니까 다들 애민하기도 했지만 이만큼 진솔한 얘기를 나누거나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타지에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니까 다들 으쌰으쌰 하며 지냈다.

자신도 어려운데, 다 같이 행복하기 위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다들 자신만 생각했으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은 혼자 아님 우리니까! 또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 보이는 BSYP와 시트모친구들이 정말 멋져 보였다. 망고르나무 심기, 라이스테라스 복원 돕기, 벼 배기 등 사실 그곳에서 우리가 한 것은 매우 작은 것이라 하고 나서도 ‘이런 것 하려고 이곳에 온 건가?’의문들 만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접 해보면서 문제의식도 가지고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영어가 안 되는 바람에 답답하고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언어의 장벽을 넘어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잘 섞여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아직 많이 파괴되지 않은 생태계를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정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행이었다.

사실 평화여행이 무엇인지 아직도 헷갈려서 보완할 점을 생각할 만큼 깊게 생각하지는 못하겠다. 2학기 평화프로젝트를 통해 이번 필리핀 평화여행을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 되었으면 좋겠다.

## 김성혁

### 한국이랑 필리핀이랑 비슷한 점과 다른 점

비슷한 점: 빈부격차가 심하다.

다른 점: 한국처럼 사계절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필리핀 사람이 더 친절하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 필리핀에서 얻거나 준 것

나는 6주간 필리핀 여행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처음 바공실랑안에 들어갔는데 BSYP친구들이랑 못 어울릴까봐 걱정을 했다. 내 예상 밖으로 BSYP친구들이 계속 말 걸어주고 장난치니까 나도 다가가기 편하고 잘 어울려서 놀수있었다. 키양안에서도 내가 엄청 아팠던 적이 있는데 같이 활동했던 씨트모 아저씨들이 거의 새벽인데도 집에 찾아와서 나를 시내 병원까지 태워다주고 계속 관찮냐고 물어보았다. 필리핀에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얻은 것에 비해 너무 못주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ㅠㅠ

### 공정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그리고 보안했으면 하는 것

공정여행을 하면서 나는 공정여행이 도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나 혼자서도 잠을 자기전에 생각해보고 많은 사람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도 검색해봤지만 정말 뭘지 몰랐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게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들로 인해서 기죽지 않고 다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여행 할수있는 것이 공정여행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6주간 공정여행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없지만 현지인과 소통하고 놀고 하면서 여행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고 이번 공정여행에서 아쉬웠던 것은 인정이 오전 오후 너무 빠르게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내년 필리핀일정은 조금 널널히 했으면 좋을것 같다.

### 평화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그리고 보안했으면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평화 여행이란 봉사를 하며 남을 도와가면서 하는 여행이 평화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바공실랑안이나 키양안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즐거웠다. 공정여행과는 조금 다른 거지만 여행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이 좋았다.

## 김예림

### 한국이랑 필리핀이랑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사실 필리핀과 한국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다. 잡채와 비슷한 판싯, 우리나라 여름 같은 더위, 여기저기 보이는 스마트폰이라던가, 마닐라의 높은 빌딩들. 빈부격차라던가, 에어컨이 뽕뽕하게 틀어져있는 백화점이라던가. 빈민촌인 바공실랑안에 간다고 했을 때도 엄청 긴장하고 간 것에 비해 너무 평범한 집들과 가게, 사람이 사는 동네였다. 수자쌈도 마치 예전의 한국 모습 같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다만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한 가지 다른 점을 찾자면 ‘사람’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다 있고, 필리핀에 있는 것도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뭐가 다를까, 했더니 사람이 참 많이 달랐다. 정이 많고, 느긋하며, 순박하고, 한없이 친절할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필리핀에 가서 처음 만난 필리핀 사람들이어서 그러나? 우리가 집에 돌아가듯 프로젝트를 마치고 가는 아시안 브릿지의 식구들이 그랬다. 정말 맛있는 분들이었다. 매번 무사가 우리에게 따다준 망고며, 만들어준 망고쉐이크, 아시안 브릿지 식구들이 해준 한국 음식들! 먹을 걸 줘서 좋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냥 묵어가는 손님일 뿐인 우리에게 미안해질 만큼 잘해주셨다. 또 바공실랑안 동네가 그랬다. 정말 필리핀에서 제일 더운 동네였던 것 같은데, 매일 들려오는 옆집의 노래방기계 소리라던가, 길바닥에 지칠 줄 모르고 노는 애들, 농구하는 사람들을 보니 어쩔 저렇게 에너지가 넘칠 수가 있나 싶었다. 지나가면 이름이 뭐냐고 묻고, 인사하고, 한국말로 말을 거는 일들이 빈번했다. 바공실랑안 친구들은 더 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갑자기 댄스파티를 하자고 하질 않나, 밤마다 모여서 공연연습하고, 지칠 줄 모르는 친구들이었다. 정은 또 얼마나 많은지, 사진을 인쇄한 머그컵, 정성스럽게 꾸민 편지, 팔찌, 노래들이 우리를 미안하게 만들었다. 필리핀의 충격적인 더위에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지치기만 했는데, 바공실랑안 친구들, 마을 사람들, 가족들, 또 키양안 홈스테이 이모, 시트모 친구들, 깔리카산 선생님들 등등 수 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기만 했다. 별거 아닌 호의로 보이기도 하지만 내 시선으로는 대다수의 필리핀사람들이 그랬다. 참 신기했다. 우리도 키크고 코높은 외국인이 지나간다고 해서 “Hello~ Hello~” 하진 않는데. 특히 옆옆옆옆옆집 아저씨 생일파티에 놀러갔던 일은 내가 사는 곳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나는 우리 옆집 언니 생일도 모르는데. 우리집보다 훨씬 좁고 허름하



고 가난했지만 바공실랑안 동네의 사람들은 부러웠다. 저렇게 매일매일이 파티고 놀이면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이 많고, 느긋하며, 순박하고, 한없이 친절하 성격 탓일까? 난 몰랐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순종적인 면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필리핀 섬 중 '네그로스'라는 섬이 있다. 오리엔테이션 때 좋아서 그런가 몰랐는데 네그로스라는 말이 필리핀이 식민지배를 당할 때 '깜둥이'라는 의미로 불리던 말이라고 한다. 그런 말을 섬 이름으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는 필리핀의 정부를 들 수 있다. 한때 필리핀이 악덕한 정부로 1위에 뽑힐 정도인데 필리핀 국민들은 우리나라처럼 격한 시위나 집회를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물론 이런 사실은 다 쌤들 얘기를 통해 들었지만 내가 느낀 것도 있었다. 백만 번을 봐도 이해되지 않는 필리핀 교통들! 안전장비 하나 없는 오토바이, 신호등 없는 거리와, 국민이 직접 운영하는 지프니, 트라이시클(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버스와 택시..?), 부자가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수도, 물. 국가에서 지켜줘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저렇게 가만히 사는 게 이상하다. 400년간의 식민지배 때문일까? 사람들이 지나치게 순종적이다.

마지막으로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아니 필리핀과 내 삶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빈민촌과 비교하면 또 모르니까. 필리핀은, 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게 했다. 이 사람들은 이 더위에 사는데. 이 형편에 사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살았나, 하는 거? 우리집이 잘 산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필리핀에 가 보니까 우리집은 아주 배부르고 등 따시고 넓게 잘 수 있는 부잣집이었던 거다! 우리집은 변기 커버도 있고, 샤워실에서 춤도 출 수 있고, 욕실도 있고, 선풍기도 세대나 있고! 무려 수도꼭지에서 아무 때나 물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의심됐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사실 내가 매일 전기며 물을 막 쓰고 오존층을 뚫는 범인 중 하나가 아니었는지 하는 상상까지? 또 다른 것도 그랬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거리에 풀려있는 개, 고양이들. 필리핀 사람들은 밥을 손으로 먹는 경우가 잦은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지 않은지. 직접 손을 쓰는 게 훨씬 편할 텐데! 휴지로 볼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물로 닦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지 않은지. 의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게 맞는지.

쌤들이랑 수다 떨다가도 한 얘긴데, 사실 필리핀이 우리나라랑 다를 이유가 별로 없다. 비슷한 황인종에 아시아 사람이고, 비슷한 음식이나 예절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수자쌤은 바공실랑안을 보고 꼭 예전의 한국 모습 같다고 했다. 그래서 필리핀이 20, 30년이 지나면 지금의 한국처럼 될 것 같다고.

근데 나는 또 반대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필리핀에서 보이기도 한다.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이 민영화되고, 가문에서 대통령을 이어받는 어이없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생길지도 모른다. 서로 나쁜 점만 닮아가는구나.

### 필리핀에서 얻거나 준 것

필리핀에서 얻은걸 쓰려니까 너무 많은데, 준걸 떠올리려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만큼 그냥 많이 받았다. 음식이나, 정성, 편지나 마음도. 특히 정 많던 바공실랑안 친구들이 기억에 남는다. 홈스테이 가정과 함께했던 단체 말고도 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떠난 곳이 많다. 정인쌤이 간디학교에서 교사를 하며 얻은 게 더 많다고 했던 게 이런 말이구나 싶었다.

우리가 갔던 바공실랑안 어린이집, 공부방들, 나가카단 초등학교, 바나우에 초등학교 도서관, 고아원에서 도움을 주러 간 건 우리였는데, 어쩐지 내가 더 재밌고 그랬다. 솔직히 어린이집 다닐 나이가 되는 애들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순 자기밖에 모르고, 시끄럽고, 귀찮고, 계속 놀아줘야 하니까. 물론 여기 애들이라고 다른 건 아니었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마주해서 그런가 그래도 애들이라 솔직하고, 착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애들이 다 착했다. 엄청 착하고, 귀엽고, 낯선 사람인데도 거리낌 없이 먼저 달려오곤 했다. 우리가 뭐라고 떠날 때 손 흔들어주던 것도 고마웠고, 리기론을 타다가 놀아줬던 남자애가 준 꽃도 잊을 수 없이 고맙다. 필리핀에 실컷 봉사하러 가서 얻은 것을 쓰라는데 생각나는 게 왠지 신기하다. 뭐 다른 사람들은 정석 그 아이들이 준 웃음, 희망, 행복 이런 걸 쓸려나? 안타깝게도 나도 그런 것 같다. 솔직히 몸은 노가다 한 것 같았는데 힘들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티비에 아프리카어린이들만 나와도 생각나는 이유다. 개네한테는 첫 외국인이겠지만 나에게서는 첫 봉사고 첫 해외여행이었다. 내 첫 봉사에 그 애들은 좋은 기억이 되었다. 물론 일일교사 프로그램 말고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계단식논 복원, 나무심기, 도서관 페인트칠 등등. 그런 활동에서도 느끼는 게 많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이나 바공실랑안 친구들, 시트모 친구들과 홈스테이 가정처럼 우리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맞닿아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받은 것 같다. 집에서든 맨날 해주는 밥 얻어먹고 사주는 옷 입고 받으면서 사는데, 하다못해 필리핀까지 와서 이렇게 많은걸 받으니까 너무 미안했다. 나름대로 준다고 편지도 써주고, 초등학교에 기부도 하고, 일일교사도 해주고, 나무도 심고, 동네에 도움이 될 일들은 다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받기만 했다는 생각이 가득하다. 그래서 필리핀 여행이 끝나고, 살면서 받는 것들은 나도 주려고 해야겠다, 바공실랑안

친구들처럼 많이 주도록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준건 인력 보충 밖에 더 안 됐던 것 같은데, 받기는 많이 받았구나.

### 공정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그리고 보완했으면 하는 것

공정여행이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갔다. 뭐 그냥 좋은 일 하는데 방문하고 어디 봉사 좀 다니고 하는 걸 공정여행이라고 하나? 보통 여행은 즐겁게 놀고 쉬러 가는데 뭐하러 공정여행을 가지? 여행이 끝나고 깔리까산학교에 있으면서 그 답이 생각났다. 공정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행이다. 그러니까 가다가 길을 잃는대거나,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다 여행인거다. 실수나 오차가 아니라 다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행이다. 애초에 공정여행이라고 따로 이름붙일 필요도 없었던 건 아닐까? 관광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돌아다니며 자고 먹고 씻는 일이 현지인과 맞닿아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과정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행이 당연했지 않을까? 여행에 관광이라는 허물이 씌어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여행인줄 알고 다니는 거다. 공정여행이라고 이름붙인 이게 훨씬 재밌는데!

공정여행에 좋은 점은 딱 하나다. 더 재밌는 거. 솔직히 그걸 빼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숙소 안 좋지, 말도 안 통하는 현지인과 소통하기 같은 거나 해야 되지, 둘러보기만 해도 피곤해 죽겠는데 계단식 눈에 들어가서 일하지!! 정환쌤은 맨날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 그러고, 피곤해 죽을 지경이었다. 와 하나 하나 따져보니까 끔찍하네.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저렇게 끔찍함에도 우리는 너무 재밌었다. 지금은 그림기까지 한다. 이유를 말하자면, 현장학습보다 체험학습이 더 재미있는 그런 차이? 온 몸으로 겪는 현지는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공정여행에서 느낀 게 한 가지 더 있다하면, 사람들 사는 모습이였다. 평생 같은 동네에만 살다가 사람도, 음식도, 물도 다른 곳에 떨어져 보니 많이 달라 보였다. 내가 쾌적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나보다 재미있게 산다는 생각도 했고, 지역을 지키려는 모습이 대단도 했고. 하여튼 내가 사는 나라와 사람들, 동네와 많이 비교해봤다. 만약 바공실랑안을 둘러보고 호텔에 자러 갔다면, 계단식 눈을 일주일 내내 보기만 했다면 얼마나 지겨웠을까!(물론 관광을 했다면 그렇게 볼 것 없는 곳에 가진 않았겠지만) 훨씬 느끼는 게 많았다.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한 곳에만 처박혀있기 억울했다. 필리핀 말고 다른 나라는 또 얼마나 색다른까 하는 생각도 했다.

물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쌤들은 시켜봤자 안 할 거라고 투덜대겠지만 공정여행은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 나는 콜라가 다국적기업인 줄 몰랐다. 필리핀에서는 웬지 몰라도 밥 먹을 때나 과자를 먹을 때나 지나가다가도 물보다 음료수를 많이 사먹었다. 누가 사 준 게 아니고 우리가! 현지에 도움을 주는 여행을 하러 와서 다국적기업 음료를 사먹는 건 뭔가 이상하긴 했다. 쌤한테 공정여행 중에는 최대한 현지 물건을 이용하자는 얘기를 듣고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언어도 그랬다. 대부분이 영어를 더럽게 못하지만 영어야 둘째 치고 따갈로그어를 배워가지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쉬웠다. 바공 실랑안에서 홈스테이 얘기가 영어를 못하는 바람에 의사소통이 안 되던 상황이 있었는데, 아 필리핀 준비 수업할 때 잘 적어놓을걸, 하는 후회만 반복했다. 필리핀의 역사, 언어, 문화 다 좀 더 공부해갈걸, 필리핀에서 내내 그 생각을 했다. 준비 했던 만큼 보이는 구나. 난 준비 하지 않은 친구여서 많이 놓치고 돌아온 것 같다. 다시 가면 더 잘 할 것 같은데! 공정여행의 보완할 점은 (내년에 갈 친구들에게 중요한 충고다) 준비를 좀 더 뽁뽁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따갈로그어로 일기쓰기 같은 거?(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이다.

### 평화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그리고 보완했으면 하는 것

여행 끝물에 했던 면담이 되게 괜찮았다. 솔직히 깔리까산학교에서 2주 동안 여행 정리하라고 귀에 딱지가 앉게 들은 것 같은데 별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미룰 수 있는 건 다 미루니까! 근데 면담은 당장 말해야 하니까 당장 급하게라도 머릿속으로 정리해봤었다. '우리가 한 여행이 평화여행이었나' 애들이 가장 어려워했다는 질문이랬다. 확실히 헛갈린다. 공정여행을 했으니까 평화롭고 평화여행을 했으니까 공정여행이지 뭐야, 하며 잠깐 말없이 고민해봤다.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때 대답했던 답은 이랬다. 공정여행은 그냥 공정한 여행이고, 평화는 평화를 찾기 위한 여행이고. 공정여행은 그 현지를 위한 여행이지만, 공정여행과 함께 진행했던 평화여행은 나를 위한 여행이었던 것 같다고 짐작한다. 내 생각에....평화여행은 공정여행 속에서 네가 뭘 하면 좋을지 찾아보라는 쌤들의 노림수 같은 거?! 여행에 '평화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나는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안 평화 한 게 많은지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지만 이 나라도 장난이 아니었다. 내 생각에 우리가 살면서 고민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엄청나게 단순 한 것 같은데, 이 단순한 걸 못 보고 산다. 아주 멍청하게 사는 거다. 파괴되지 않은 더 웅장한 계단식 논을 보러 트레킹하는 길에 쌀을 싣고 나르는 사람을 봤다. 논이 풍경의 전부

인 곳에서 쌀을 들여오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랬고 우리나라도 다를 게 없었다. 바공실랑안은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한다. 홍수만 났다 하면 사람이 떠나려가는 그런 곳에 사는 거다. 어떤 골목은 앞에 높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서 햇빛도 들지 않았다. 요새 이상기후로 더위는 더 심해졌다고 한다. 스콜은 더 잦아지고, 가뭄에 정부에서 뿌리는 비도 맞아 왔다. 이렇게 이상한 게 많았다. 지프나나 트라이시클, 바이시클은 아마 필리핀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상한 교통수단이 아닐까?

필리핀에서 안 평화로운 면을 발견하면서 막 의지에 넘쳐흐를 것 같았지만 사실 좀 피곤했다. 내가 쾌적하게 살아온 생활이 만든 상황이기도 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에어컨 빵빵한 시원한 도서관, 저렴한 쌀, 하루의 피로를 푸는 샤워들이 만드는 현상이었다. 사실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면서 혼자 잘 살겠다고 나몰라라 하진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름다운 제단에 후원금 받으려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 후원금을 통한 여행이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을 줄 거라고 썼는데(지금 생각하니까 말이 좀 심하게 번지르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서 실제로 큰 전환점을 주었다. 말로만 하던 평화, 말로만 하던 실천이 왜 필요한지 온몸으로 깨달은 듯 했다.

요즘 한국에도 비가 엄청 오다가 똑 그치곤 한다. 나는 여기가 무슨 필리핀인 줄 알았다.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하니 몇 년 전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전혀 몰랐다. 그런 걸 이제야 깨달았다. 평화라.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건 꿈도 안 꾸고, 그냥 평화롭지 않은 세상이 내일 더 최악이 되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만 하면 노력하는 자체로 세상은 너무너무 평화롭고 재밌는 세상이 될 거다. 이걸 느낀 여행이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다.

## 김지형

### 필리핀에 와서 내가 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필리핀에 와서 준 것이 있을까? 잘 모르겠다. 나는 얻은 것은 많은데 준 것은 정말로 없는 것 같다. 얻은 것은 바로 긍정의 에너지다. 필리핀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든 너무 긍정적이다. 부자촌은 당연하고 빈민촌 사람들은 더욱더 활발하고 긍정의 에너지가 넘친다. 바공실랑안에 있을 때 닉키라는 친구 집에서 지냈는데 그곳 사람들은 슬픈 표정을 얼굴에서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6주 동안 살았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다. 완전 내 스타일이다. 또 얻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자 친구를 얻었다. 바공 친구, 시트모 친구, 그리고 필리핀간디학교 친구, 이 6주간의 여행으로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생긴 것 같다. 내가 여행이 아니라 관광을 했으면 이 친구들이 생겼을 일이 없다. 나는 이제 국적을 뛰어 넘어 친구들이 생겼다. 이 우정을 계속 나누어야겠다.

내가 준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곰곰히 생각해보자. 내가 필리핀에 와서 준 것은 아무래도 나의 에너지가 아닐까? 진짜로 그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 나도 간디학교에서는 정말로 활발한 쪽에 속한다. 필리핀사람들보다는 아니겠지만 간디학교에서는 열정남으로 불린다. 나는 나의 에너지를 필리핀 사람들에게 주었다. 내 에너지는 택도 없었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에너지와 나의 에너지를 맞바꾼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님 말고 ㅋ이게 다 인가? 내가 준 것은 이게 단가? 그들은 나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줬는데 내가 준 것은 고작 나의 에너지? 나도 참 이기적인 것 같다. 앞으로는 나의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 줘야겠다.

### 필리핀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나는 필리핀이 처음이다. 필리핀의 문화, 식물, 밥 등등 모든 게 처음이다. 이런 생 초보의 눈으로 본 필리핀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다. 한국과 필리핀의 공통점은 우선 쌀이다. 필리핀은 어디서든지 밥을 볼 수 있다. 빈민촌이든 ,부자촌이든 게다가 패스트 푸드점에서 까지 밥을 볼 수 있다. 정말로 대단했다. 필리핀 공정여행 일정에서 밥이 안 나온 날은 없었다. 그리

고 또 다른 공통점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차이점은 많이 찾았다. 우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력이다. 필리핀은 정말로 물가가 싸다. 내가 용돈을 15만원을 가지고 갔다. 한국에서는 이 돈으로 6주 동안 버티기가 힘들다. 여행을 하다보면 균것질도 하게 되고 기념품도 사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2주일이면 다 쓸 것을 필리핀에서는 6주 동안 쓰고도 남았다. 왜 이렇게 경제력이 떨어질까? 이것은 정환쌤의 생각이다. 필리핀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하지만 우리나라들의 대기업들은 전자기기의 원재료를 어디서 싸게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필리핀과 비슷한 여러 국가에서 싸게 사고 전자기기로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력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것이 하나의 차이점이고 또 다른 것은 바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 일수다. 그렇지만 필리핀사람들은 외국인(간디사람)을 볼 때 마다 hi~, 아니면 안녕? 이라고 인사를 한다. 나에게도 색다르게 다가왔다. 한국에서는 이런 장면을 본적도 없고 이런 대접을 받아 본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리핀사람들은 정말로 너무 친절하다. 물론 한국사람들도 친절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필리핀사람들은 정말로 너무 친절하다. 어떤 점에서 친절하냐면 우리집 홈스테이 사람들은 나를 보며 웃어주며 또한 바공 친구들은 나를 지켜준다. 분명 나는 친절을 많이 느꼈는데 어디서 느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다른 친구들도 그럴 것이다.

### 공정여행이란?

공정여행은 무엇일까? 공감만세 에서는 모두에게 공정한 여행이 공정여행이라고 한다.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고 현지인들과 같이 일을 하며 그 분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 다른 곳에 가서 돈을 펍펍 쓰며 최고급 호텔에서 자고 최고급음식을 먹는 것은 여행이 아니 관광이다. 나는 지금 공정여행을 했다. (두마게티에서는 여행이 아니 관광을 한 것 같다.) 공정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공정여행이 뭔지도 잘 몰랐다.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조금은 알 것 같다. 나에게 공정여행이란 백인, 흑인, 황인, 다 상관없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현지인들과 만나며 같이 살아가는 여행인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은 왜 공정여행을 하라고 하는 걸까? 필리핀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하지만 우리나라들의 대기업들은 전자기기의 원재료를 어디서 싸게 산걸까? 그것은 바로 필리핀과 비슷한 여러

국가에서 싸게 사는 것이다. 그 뒤 그 나라에 전자기기로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밑에 깔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도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나도 앞으로 많이 노력해 보겠다. 나는 관광을 좋아했다. 아니 좋아한다. 그렇지만 공정여행을 하기도 했고 필리핀의 사정도 들어보니 앞으로 여행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겠다. 이번 공정여행이 나를 많이 바꾼 것 같다.

### 평화 여행이란?

평화 여행은 뭐지? 나는 잘 모르겠다. 시트모 친구들과 같이 살면서 놀았던 게 평화여행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를 지키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평화 여행인가?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그거라면 나에게 평화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잘 꾸려나가는 것이다. 그럼 나에게 평화여행은 무엇이지? 인생 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나의 평화니까 이러면 말이 된다. 키양안에 있는 시트모 친구들은 자신의 고향을 지키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 남아 자기 자신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 우리도 꼭 사리 꺼서 체험을 해봤지만 나는 그게 평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평화 여행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 자신의 평화가 돈을 펄펄 쓰면서 노는 거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평화 여행인 것이다. 사람들이 평화여행은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 같이 잘살고 막 사랑, 봉사, 공정 이런 것이 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 그건 그냥 사람들의 고정관념일 뿐이다. 이제는 그 고정관념을 부숴버릴 때다.

평화는 사랑, 봉사, 비폭력 이라고 많이 말하지만 사람마다 평화는 다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평화여행은 한마디로 정의 할 수 없다.



## 김태우

### 한국이랑 필리핀이랑 비슷한 점과 다른 점

한국과 필리핀의 공통점은 오랜 세월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했다. 그런 영향에서 인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많이 좋지 못한 편이다. 어렵פות이 들은 얘기지만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이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고도 했다.

다른 점이라 하면 필리핀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장 안으로 차가 드나들 때 조금의 돈을 받는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많다.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는 방식이 한국보다 자유로운 편인 것 같다.

### 필리핀에서 얻거나 준 것

우리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필리핀에서 4주 동안 연대활동들을 진행해 왔다. 그런 반면 우리는 현지사람들의 정성적인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떠날 때 안 그래도 짝 차는 가방이 그들의 선물들로 인해 더욱 더 채워졌다.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애정을 쏟아 부어주었고, 우리가 이별할 때 마음에 와 닿을 정도로 아쉬워해줬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가치는 정말 크다고 생각한다.

### 공정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보완했으면 하는 점

현지인의 거처와 현지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사는 방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얼마나 갖추어진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 평화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보완했으면 하는 점

우리가 진행해온 연대활동으로 인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연민, 사랑, 나눔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 노영빈

글쓰기 주제가 4개나 되어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매우 막막했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다듬어져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필리핀으로 출발하기 전의 나와 같다 온 후의 나는 나도 느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생겼다. 그렇지만 너무 나를 알아버렸는지 나의 안 좋은 점까지 알아버려 지금 내가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아 사실 머리가 아프다. 그렇지만 이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바뀌어야겠다. 그리고 나를 찾아야겠다. 중학 3년간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조차 애매하였고, 누가 하자면 하고 말자면 말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또렷한 의사표현과 강력한 자기주장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다. 당장 남은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그 짧은 시간동안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가 방학 내내 노영빈을 찾아내야겠다.

필리핀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나는 사실 왜 필리핀에 가는지 잘 몰랐다. 하지만 갔다 와 보니 이제야 알겠다.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꼭 필리핀이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꼭 필리핀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다. 사람마다의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계를 부딪치면서 배울 수 있었다. 나에게 필리핀은 하루, 하루가 한계점이었고 한계치였다. 덥고 습한 날씨를 싫어하여 활동하기를 정말 싫어하였지만 어찌겠나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그렇다 초반에 나의 자세였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어찌면 내가 날 더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날씨에 적응을 해갔고, 누구보다 빠르게 필리핀에 적응해갔다. 그때부터 나의 자세는 조금씩 달라졌다. 그렇게 바뀌어가 단순히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것이 아닌, 하라고 하는 것의 이유를 찾고 말라고 하는 것의 의문을 띄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보았다. 특히 내 자신을 많이 보았고, 사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장소가 외국이라서 더 예민하고 잘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웬지 앞으로는 달라진 나의 시선이 상상이 된다. 그런 점들을 내가 다녀와 보니 내 몸이 기억하고 터득한다. 한 층 더 성장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정확한 것은 단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일에 생각을 하고 행동한다. 필리핀에서는 때론 그 것이 힘들어 나를 놔 버린 적이 많다. 그렇게 나는 날 꺾어내고 있고, 현재의 나는 거의 꺾였기를 바란다. 확실한 거는 알 수 없다. 어렵듯이 짐작을 할 뿐이다. 그래도 그 것만으로 만족한다. 여태까지의 나는 짐작조차도 하지 못한 나부랭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모든 문제는 시간

이 해결을 해준다.” 라는 말은 살면서 시시때때로 듣던 말이다. 힘들거나, 괴롭거나, 즐거우나, 행복하거나 언제나 내가 듣던 말이다. 여태까진 제대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흘러왔다. 당연하게 시간이 해결을 해주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제야 그 뜻을 이해하게 되어 아쉽지만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 그래서 나는 매우 기쁘다. 필리핀에 와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같이 논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정말 힘들다. 나의 기운을 빼내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작업 듣기만 하여도 정말 힘들다. 하지만 끝마칠 때마다 많은 것을 얻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6주간의 활동 중에서 아이들과 접촉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초반에는 힘이 많이 빠지는 일이라 별로 땡기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 활동을 해보았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못 느끼겠다. 그럴 때마다 쌤들이 얘기해주신다. 절대로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나의 생각은 차츰 바뀌어 나갔고 내가 살면서 처음 본 외국인이 되었을 때는 이미 아이들과 동요가 되어있을 때였다. 아이들까지 나에게 다가오길 바라는 것은 큰 오산이었고 착가이었다.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사람과 사람 간의 생기는 일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런 꼬마 아이들에게 난 바라는 것이 참 많았다. 그 것을 느끼고 나니 주변에서 보았을 나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서 순간 얼굴이 불그스레해진다.

필리핀, 강렬한 곳이다. 한국과는 다른 멋이 있고 맛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도 그만의 멋과 맛이 있다. 여태까지 외면적인 필리핀과 한국을 봤다면 이제는 내가 다녀온 여행을 통해 그 속을 알아보자. 내가 경험한 필리핀의 사람들은 아주 밝다. 인사문화가 좋은 것 같다. 어디든 내가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흔들어주던 손인사를 한국에서 조차도 받아보기란 힘들 것 같다. 저번 마음 나누기 때에 얘길 했는데 한국에서 외국인보면 방긋 웃으며 인사를 해주기로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못할 것 같다. 그것이 나 하나만의 이유면 고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환경은 나를 억누르고 가둔다. 그 속을 뚫고 나오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다. 그 외에도 한국은 이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이 분위기 속에서 가족 같은 사회구조란 바랄 수 없는 공간이다. 허나 내가 10일간 살아 본 바공실랑안은 한 마을 전체가 가족인 듯했다. 어딜 가나 서로 친 겹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닌가 싶다. 10일 동안 이런 곳 속에 살면서 한국은 언제쯤 더불어 사는 삶을 몸으로 실천하고 받아드릴 수 있을지가 걱정

이다. 내가 살아보기로는 바공실랑안 같은 마을서 살면 재밌는 일이 좀 더 많고 행복한 일들이 훨씬 많이 생길 것 같다. 필리핀과 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필리핀은 아주 순진한 양을 다스리는 수풀 속에 숨어사는 늑대이고, 한국은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과 같이 필리핀과 한국은 많이 다르다. 정말 쉬운 것부터 기후의 차이, 인구 수, 나라의 면적, 사용하는 언어 등 정말 많은 것이 다르다. 그 중 나는 더불어 가는 삶, 공동체의 부분에서 다른 점을 찾아내었다. 그럼 이번에는 비슷한 점을 찾아내야겠다. 선부른 생각일 수도 있다. 필리핀과 한국은 정치가 엉망진창이다. 필리핀의 예전부터 독재정권과 온갖 비리가 휩쓸고 있고, 한국 역시 수많은 비리와 부정 선거들이 판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에도 많지는 않지만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 외에 필리핀과 한국만이 통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되면 점점 더 형식적인 글이 된다. 하지만 어찌겠나, 아직까지의 난 형식적인 글을 작성해야 하는 수준인 듯하다. 생각이 났다. 필리핀과 한국은 빈부격차가 비슷하다. 다른 나라들도 빈부격차야 존재하지만 한국과 필리핀만큼의 빈부격차를 격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나도 필리핀에 오기 전까지 한국의 빈부격차를 실감나게 느낄 수 없었다.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리핀에 오고서 직접 빈부격차를 체험하다보니 한국의 빈부격차도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심각했던 것이었다.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 물 잘나오고 불 잘들어오는 곳에 가면 잊어버릴 수 있는 문제이다. 나도 그 틀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그 순환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핀이었다. 그 곳에서 느낀 한국과 필리핀의 빈부격차는 일단 사는 집부터가 달랐다. 아시안 브릿지가 있는 B·F Homes를 조금만 둘러봐도 알 수 있다. 이미 B·F Homes는 출입이 막혀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못살아 보이는 집은 콘크리트로 페인트칠조차 되지 않은 집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엄청 좋은 2층집에다가 마당도 있고 타일과 대리석으로 포장한 집들도 매우 많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도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게 되어있다. 한국은 나름 나누어져있다. 아니 제대로 나누어져있다. 경기도·서울권과 나머지 시골이라 칭하는 곳들... 그렇다. 한국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온다. 그 와중에도 돈이 없어 경기도로 쫓겨난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에 고층아파트들에는 아직도 세 들지 않은 집들이 많다. 도대체 건설업체는 그 빈 집을 두어 어디다가 써먹으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쯤 필리핀에서는 메트로 마닐라와 바로 옆 바랑가이, 바공실랑안을 예를 들겠다. 우리가 다녀온 메트로 마닐라의 마카티라는 지역으로 필리핀의 강남이라 불린

다. 이 지역은 아얌라 가문이 소유하여 필리핀은 유명한 몇 가문들이 국토의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무튼 마카티와 바공실랑안을 비교해보면 그냥 한 눈에 봐도 다른 점을 깨달을 수 있다. 바공실랑안에 아파트가 있는가? 아니 없다. 오로지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거나 거의 허물어져 갈 듯 한 집들뿐이다. 그렇다. 필리핀 역시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다. 한국은 시골들이 빈민촌은 아니지만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비슷하기에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삶이 점점 힘들고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필리핀 사람들의 특유의 힘으로 극복을 해나가는 것 같다. 반면에 한국은 좌절하고 절망을 하거나 포기를 하고서 서울 근방으로 올라온다. 이 문제는 해결하려면 나라 전체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쳐나가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다.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좋을 것을 한쪽의 이득만을 위한 세상은 보기 좋지 않을 것 같다. 분명히 바뀌어야 할 문제이다. 그렇기에 필리핀도 한국도 노력해나가야 될 것 같다.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다. 식민지. 필리핀은 미국과 일본에게 엄청난 시간동안 식민지를 당했다. 그러나 현재의 시민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 나라의 국명조차도 억울한 뜻이 담겨있는데도 바꿀 생각이 없다. 반면 한국은 필리핀에 비교하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아직도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져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정말 좋지 않다. 그것이 시민들만의 생각일지라도 필리핀과는 너무 다른 점이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나라만의 특색? 이라고 하는 것도 같다. 가끔씩 페이스북을 하다보면 00일이 벌어졌을 때 나라간의 대처 이런 것들이 재미로 띄워지는데 멍 때리고서 보다보면 딱 그 나라의 특색을 꼬집어 놓은 듯하다. 한국 역시 나와 있는데 보면 항상 좋게 평가가 되지 않는 듯하다. 이 글이 올라온 자체가 한국을 비판하고자 한 글일 가능성은 많지만 그 것들이 거의 현실이고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앞으로가 걱정이 된다. 그렇게 필리핀, 한국 둘 다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 않은 것 같다.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국민들도 자유롭게 그 뜻을 밝힐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여행과 공정여행은 언 듯 보면 비슷하거나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좀만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둘의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평화여행과 공정여행의 차이는 일단 공정여행은 여행의 큰 틀부터 해서 짜인 아주 세세한 활동까지를 공정여행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평화여행은 큰 틀과 그 안에 짜인 활동 속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느끼거나 배우는 것들이 평화여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조별여행으로 간 살람도웅

에서 다이빙을 했었는데 뛰어내리기 전 다이빙대에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 그 생각들이 6주간 살면서 들었던 느낌과 감정, 생각들과 비슷한 것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 다이빙대는 6주간의 경험들을 정리해주었고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는 계기였기다. 그럼 공정여행은 나에게 무엇일까? 공정여행은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냥 정말 공정하고 평등한 여행이다. 그래서 내게는 저울이라는 느낌도 든다. 관광과 여행의 사이를 저울질로 직접 맞춰가는 듯하다. 우리 역시 그 과정을 같이 해나갔고 그랬기에 우리가 배우는 점도 있겠지만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로가 공정한 여행이 아니었나 싶다. 처음 활동계획표를 보면 키앙안에서의 일정이 대부분 평화도서관 일정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나갔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만들어가는 여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그 덕에 공정여행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사실 아직까지도 공정여행이 뭔지 설명해달라고하면 해주기 힘들 것 같다. 정석대로의 설명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나의 경험과 느낌을 바탕으로 설명해주기엔 나의 생각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 여름방학 때 다시 필리핀에 갈 계획을 짜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준비는 해보는 중이다. 공정여행은 다시 또 가고픈 여행인 것 같다.

## 박상연

### 한국과 필리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내 생각에 한국과 필리핀의 비슷한 점은 딱 1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전자기기사용, 필리핀에 1달 동안 와있으면서 느낀 건 필리핀사람들이 전자기기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즘 시대에 한국을 돌아다녀보면 어딜가나 전자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필리핀사람들도 그런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됐다.

다른 점은 굉장히 많은데 그 수많은 다른 점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적어야 할 것 같다.

(기억에 잘 남았던 것들만)

첫 번째, 술과 담배에 관해서는 한국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의 무관심, 차가운 얼굴과는 다르게 필리핀사람들은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다.

세 번째, 빈부격차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잘 보였다. 하지만 빈부격차에 대해서 별로 대수로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다.

네 번째, 우리나라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것을 알았다.(이 나라사람들은 거의 다 2G폰을 쓰거나 아예 핸드폰을 안 씀)

다섯 번째, 개들을 진짜가족처럼 대한다. 묶여있는 개들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진짜 무서웠음TTT)

### 필리핀에서 얻거나, 준 것

필리핀에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 난 필리핀에 와서 뭔가를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근데 생각 외로 신기하게 얻은 게 많았다. 첫 번째로 필리핀사람들이 교육 받는 것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 부분에서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배운다는 것을 그저 귀찮은 것, 이렇게 만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기만 하다. 필리핀사람들은 못 배워서 슬퍼하는데

나는 배움을 귀찮아했다니.... 이번 일을 계기삼아 앞으로는 제천간디학교의 교육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남은 배움의 시간을 채워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필리핀의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 그 따뜻한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한국 사람들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할 일에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대로 필리핀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웃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도 “필리핀은 그저 물가가 싸고 관광할 곳이 많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필리핀사람들의 따뜻한 모습들을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얻었다.

필리핀에서 준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몇 가지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에게 기존에 받던 교육과는 다르게 우리들만의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가 했던 교육이 그렇게 도움이 되었는데는 의문이지만 아이들은 분명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교육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필리핀사람들에게 한국인의 안 좋은 이미지들을 조금 없애준 것 같다. 필리핀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인은 관광에 미쳐 살고 돈이 정말 많고 언제나 무뚝뚝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행을 하면서 필리핀사람들에게 저런 생각 따위는 들지 않을 정도로 웃어주고 말도 걸어주었다. 그래서 이번기회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은 이렇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조금 심어주고 온 것 같다.

### 공정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그리고 보안했으면 하는 것

일단 내가 생각하는 공정여행부터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내가 생각하는 공정여행은 현지사람들과 소통하고 내가 가는 지역에 각가지의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예전의 일본, 태국, 유럽 국가들의 여행과는 다르게 훨씬 신 나는 것이 많았다. 나는 이번 필리핀공정여행을 하면서 “아 지금까지 여행이라고 생각해왔던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관광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관광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현지사람들과 소통했던 적이 없었는데 필리핀공정여행은 좀 많이 달랐다. 어쩔 수 없이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들의 연속들이었고,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될 수 있었다. 난 당연히 필리핀은 망고가 맛있고 바다가 좋은 나라?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바다와 떨어진 곳들을 여행하면서 필리핀의 안 좋은 부분들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바나우에 계단식논, 이 계단식 논은 현재 세상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늘었고, 농부들이 하나둘씩 관광 사업으로 뛰어들게 되는 바람에 계단식논의 관리가 소홀해졌고 그 결과 바나우에 계단식 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필리핀은 진짜 갈 때까지 간 나라다. 학교에서 정환쌤이 정말 많이 설명해준 부분인데 여행을 시작하고서야 느낄 수 있었다. 필리핀이 이정도 까진지는 몰랐는데 빈부격차가 정말 많이 심했다.

어딜가나 다 똑같았다.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2층집에서 맥주를 훌쩍대고 있고, 그 옆에 가난한사람들은 어떻게든 많은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필리핀은 기자가 함부로 기사를 못 낸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필리핀기자가 기사한번 잘못내면 정치인들이 그 기사를 암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필리핀의 잘못된 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하는 기자들을 암살한다니... 그것이 과연 정부가 해야 할 일일까? 이런 면에서 정환쌤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옛날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

느낀 점은 이정도이고 필리핀의 좋은 점은 나이차이가 많이 나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친구처럼 편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통 한국 같았으면 20대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어린애로 생각하고 상대도 안 해주었을 텐데 필리핀에서는 모두와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다.

보완해야할 점은 없는 것 같다.

평화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그리고 보안했으면 하는 것

필리핀사람들과 우리들은 서로 많은 것을 나누었고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것 같다. 결론적으로 좋았다. 보안할 점은 딱히 없다. 그냥 내년 4학년 친구들은 주제글쓰기를 할 때 굳이 평화여행, 공정여행 나눠서 글쓰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이상입니다.

## 서명아

### 필리핀에서 내가 준 것과 얻은 것.

이제 필리핀도 끝이 났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고작 3일째인 지금, 아직은 필리핀에 갔다 왔다는 것이 꿈같기만 하다. 내게 ‘필리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에메랄드 빛 바다도, 맛있는 망고도 아닌 필리핀 ‘사람들’이다. 필리핀에 가서 나는 정을 주고, 그보다 많은 정과 에너지를 받고 온 것 같다. 내가 본 필리핀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활기차고, 웃음이 많았다. 길거리만 지나가도 웃으며 인사해주는 그들 덕분에, 난 그냥 길을 묻는 것과 같은 간단한 만남부터,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모두 즐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필리핀에 가기 전, 강의를 하러 오신 고두환씨께서 말하셨다. 필리핀에 가서 정말 잘사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라고. 가기 전의 나는 ‘필리핀에 가면 정말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필리핀의 활기차고 밝은 아이들을 보며 난 어느새 저절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물론 돈이 많다고 잘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100% 내 생각이 아니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내게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게 말해주었고, 나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는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야 생각해보면 그것은 내 주변 어른들의 생각이었지 완벽한 나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필리핀에 와서 난 처음으로 정말 잘 사는 게 무엇일까에 대하여 나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었다.

결국 내가 필리핀에 와서 하나 확정지을 수 있었던 것은 돈을 위해 일에, 공부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빈민촌에 살지만 활기찬 바공실랑안 사람들이 훨씬 행복에 가깝다는 것이다. 내가 필리핀에 와서 얻은 것은 이런 것들인 것 같다. 필리핀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은 정과 에너지지만, 그로 인해 내 스스로 주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필리핀에서 얻은 가장 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5/15 <여섯째 날 일지> 중

지금까지 내가본 필리핀 아이들은 다들 잘 웃고, 정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 아이들 앞에선 더 잘 웃게 되고, 더 정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다.

## 한국과 필리핀의 비슷하거나 다른 점.

내가 본 필리핀과 한국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랐다.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핑크로 둘러싸인 바공실랑안 시장님 이었다. 내가 본 필리핀은 시장, 의사, 교수, 교장 등의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높아 보이고 어려운 느낌이 아니었다. 물론 '필리핀 사람들은' 이라고 보편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난 한국 사람들 이라고 해서 모두 그 반대였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BSYF를 보고는 자신의 자매, 친구라고 칭하며 어깨동무를 하는 것,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하며 학교를 한 곳, 한 곳 소개시켜 주시던 것 등등의 경험은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원래 필리핀에서는 작은 베이커리 하나 오픈할 때도 시장님이랑 다 오셔서 컷팅식을 한다는 수정언니의 말도 생각이 난다. 필리핀 사람들은 남의 눈을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의 위엄을 지키기지 않고도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직업 같은 건 상관없이 서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또, 그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감추지 않을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내가 느낀 필리핀만의 특성은 전체적인 사람들의 느낌이었다. 내가 만난 필리핀 사람들은 다들 웃음이 많았다. 같이 활동한 단체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이들, 심지어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눈이 마주치면 어느새 환한 표정으로 웃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에서 내가 힘들어도 기분 좋게 생활 할 수 있었던 힘이 아닌가 싶다.

이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초반부터 가끔씩 궁금했던 부분인데, 언젠가 마음나누기 시간에 어떤 쌤이 말한 적도 있는 것 같다. 필리핀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시설과 공공의 지원이 우리나라보다도 많이 없는 것 같다. 시티오 바칼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느꼈다. 시티오 바칼 주민들을 인터뷰 했을 때 주민들은 마을에 제일 필요한 것으로 물과 도로, 전기와 불빛을 꼽았다. 거리를 돌아다닐 때 공공 화장실과 같은 편의 시설이 많이 없었고,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두마게티의 홍수방지 댐과 같은 것도 단체들이 협력해 만든 것 이었다. 가까이 보면 CDC와 같은 곳도 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한국에 와서 아시안 브릿지가 모금을 하는 것을 보고도 그런 걸 느꼈다. 아시안 브릿지가 하는 모금은 다이아몬드 어린이집의 교사인건비와 교재비가 부족해서 하는 것 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공공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예전 모습이 정말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난 그 시대에

기억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크게 동감이 가진 않았다. 하지만 필리핀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필리핀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 길이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우리나라나 필리핀이나 힘 센 나라들과 큰 가문, 기업에 휘둘러 사는 게 똑같은 것 같다. 식민 지배를 당했다가 풀려났는데, 미국에게 또 식민 아닌 식민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미국이 생각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무섭다고 생각했다.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 왜 이렇게 살까. 모두가 똑같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은 동화 속에 서나 존재하는 걸까? 우리가 한 여행이, 앞으로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필리핀을 떠난 지금, 역시 제일 그리운 것은 필리핀의 시끌벅적한 활기참이다.

### 공정여행이란, 평화여행이란

필리핀에 가기 전, 모금을 할 때 피켓 팀이 계단식 논 피켓에서 썼던 문구의 일부다. ‘우리가 계단 식 논을 왜 지키려하냐 구요? 계단식 논은 이푸가오 족 사람들에게 고향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 계단식 논이 관광만을 생각한 관광객들로 인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을 되돌아보세요. 그곳의 사람들과 그들의 터전을 생각하며 여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찌면 그곳을 그렇게 만든 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공정여행에 대해 제대로 알고 썼던 글도 아니고, 웬지 황설수설 하지만, 저기서 말하려는 것이 바로 공정여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곳에 잠깐 갔다 온 것으로 인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지역에 피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야만 하는 수칙이다. 하지만 내가 피해를 줘야지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그냥 관광지로 만들어 버리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공정 여행은 관광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여행이란 이름의 관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내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피해가 아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인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 같다. 그곳과 그들을 이해하기위해 그곳의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 공정여행이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 생각에 평화 여행은 ‘공정하게 여행하며 평화를 전파시키는 것’ 인 것 같다. 정말 평화를 위해 여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공정여행의 형태를 뿜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만, 평화여행은 공정여행에서 좀 더 세분화 된 것 같은 느낌이다.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인데 태어난 자리만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라고 생각 한다. 내가 했던 여행은 모두가 행복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나아가는 여행 이었던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온 것들에 대해 감사해 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여행이 아닐까?

결국 제일 이상적인 여행은 '평화를 생각하며 공정하게 여행하는 것'

# 서하린

## 한국과 필리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사실 필리핀에 도착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동안 한국과 필리핀이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뭐 굉장히 한국에서 먼 나라이기는 하지만 시간대도 별 차이가 없고 흔히 낯선 곳에 가면 느끼는 그런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었던 적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런지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왠지 모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뭐 제일 다른 점을 꼽아보자면(사실 다른 점이긴 하지만 동시에 제일 의문가는 지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많이들 주장하는 '단일민족국가'인 데다가 뭐랄까 그에 따른 자존심(?) 이 강하다. 그에 비해 필리핀은 워낙 땅도 크고 섬도 여러 개인 곳을 한 나라로 묶어 놓았다 보니 각 지역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 사람 다르고 서울 사람 다르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바나우에 지역에서 이푸가오족이 아직도 그들만의 삶을 살고 있길래 왠지 필리핀이라는 나라 안의 이푸가오공화국이라도 다녀온 느낌. 정말 그 쪽 사람들은 뺏속까지 이푸가오스러웠다. 설명하기가 매우 골치아프긴 한데 이런 점이 좀 다른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루손섬 비사야제도 민다나오섬 이 세 섬의 문화라던가 하는 것도 확연히 눈에 띄게 다르고 심지어 그들만의 또 다른 언어도 존재하는 마당에 이들이 모두 하나의 나라라니. 어떻게 된 경위인지는 몰라도 이 점은 이상하다기보다 좀.. 신기하다.

그리고 다른 점이 또 하나 생각났는데 필리핀사람들은 우리나라사람처럼 살짝 신경이 곤두서있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착한사람~ 하면 해당되는 사람들만 모아 놓은 곳 같다. 꼭 착한 게 아니더라도 손님 지극히 대해주기라던가 태평하고 여유롭게 살기, 있으면 있는 대로 지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기.. 우리나라처럼 돈에 죽자사자 매달리며 살지도 않고 지극히 외모지상주의의지도 않고.

물론 한국과 다른 점도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비슷한 점이 더 많은 것 같다.

미국 손아귀 안에 있는 점부터 해서 빈부격차, 부정부패... 뭐 이것들은 워낙 많이 거론되었던 점들이라 길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왠지 어느 면으로 보아도 필리핀이 걷는 길을 한국도 따라 걸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이

걸었던 길을 앞으로 필리핀이 걷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셈이다.  
그리고 정말 단순히 바라보자면 뭐 하얀 피부 좋아하고 키 큰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 사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흔히들 말하듯이 한국인이나 필리  
핀인이나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이쯤 마무리할까 생각했지만 문득 놀랍게도 필리핀과 한국의 확연히 다른  
점이 생각났다! 필리핀은 그러니까 음.. 뭐랄까 성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개방  
적이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특히 제3의성에 대한 시  
선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교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나라는 종교에  
대한 개념이 자유로운 편이라 무교인 사람들이 대다수이거나 꼭 가톨릭교 말  
고도 기독교 불교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필리핀은 오직 가톨릭교 하나뿐이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랬다.

(정말 살다살다 새벽 3시에 교회로 다같이 모여 기도하며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을 볼 줄은 몰랐다.)

### 필리핀에서 얻거나 준 것

연기는 정말 많이 얻은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준 것은... 와 정말 비율로 따진  
다면 난 한 10분의 9정도를 받아먹고 나머지 10분의 1정도만 그쪽에게 준 듯  
하다. 물론 내가 여행차원으로 가긴 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왠지 핑계만  
같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필리핀에서는 참 많은 것을 얻었다. 꼭 물  
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필리핀은 뭐랄까 정신적(?)으로도 내게 많은 것을 선  
사했다. 뭐 필리핀이라는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나라의 문화도 체험했고 그로  
인해 얻은 갖가지 짜잘한 지식들. 필리핀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은 관심과 애정  
과 걱정과 우려들(오글ㅋㅋ). 그리고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것들로부터  
나는 많은 경험을 얻었고 그 경험들은 나에게 꽤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  
었다.

그 생각으로 인해 내가 정신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거나 하는 건 잘 모  
르겠다. 다만 후에 필리핀을 떠올리며 '그 때 필리핀이 정말 좋았지' 하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준 것을 말하자면... 음... 나는 필리핀에서 무언가를 주었다기  
보다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형식적인 대가만 치르고 온 것 같다. 아 아니지



공정여행을 했으니까 그래도 계단식 논 보수같이 작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아 웬지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같은데 뭐 공정여행이 다 그렇지(절대 비하한다거나 불평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 공정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그리고 보완했으면 하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확실히 느낀 건 ‘아!! 진짜 왜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지 알겠다.’ 정말 말 그대로 공정한 여행이었다. 받은 만큼 주고 온 여행. 누가 이런 참신한 여행형식을 생각해냈는지는 몰라도 참 좋은 사람이다. 앞으로 여행 갈 때 ‘과연 이게 공정한 여행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공정여행의 좋은 점은 ‘아! 공정여행이 진짜 좋구나 우와.. 서로 공평하고 이거 완전 좋은걸?’ 하는 게 아니라 공정여행에 담긴 참뜻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게 좋은 것 같다. 나만 편하면 좋은 줄 알았지 나의 편리함을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과거의 내가 생각한 것이라곤 ‘나는 대신 그만큼의 돈을 지불했으니 당연하다’ 고만 생각했지 단순히 대가만 치르면 땡! 이 아니고 서로 좋은 만남을 가지면서 여행자는 좋은 여행을 하고 현지인은 좋은 여행객을 만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제공하는 게 진짜 여행이구나 하는 것은 뭐.. 스치는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공정여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직접 체험해 보며 그 뜻을 몸으로 느끼고 나니 그 때 몸은 힘들었지만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의미 있고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다. 이것 또한 역시 여행에 대한 내 생각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는 좋은 계기였다. 그리고 보완했으면 좋은 점 뭐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전체 필리핀 일정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 조금만 뭐 해도 지치고 하기 싫고... 이것을 고려해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지금 봤을 땐 충분히 많이 넣어 준 것 같은데 그 땐 정말 피곤했었다. 뭐 이건 내 몸 문제니까 그리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근데 웬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정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공정여행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깨우치고 떠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별로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덕산 소강당 티비를 보며 백날 설명을 들어도 직접 한 번 갔다 오느니만 못하다. 그리고 이걸 말로만 들었다고 해서 별로 아주 잘 이해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대전에서 했던 1박2일짜리 공정여행은 사실 공정여행인지도 잘 모르겠고 힘들기만 해서 사실 좀 아쉬웠는데 필리핀을 공정여행으로 갔다 오니 공정여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여행

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 평화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그리고 보완했으면 하는 것

평화여행을 통해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

고 설명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공정여행과 평화여행의 차이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억지로 글쓰기를 지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6주 동안 실컷 평화여행이랍시고 잘 지내 놓고 평화여행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려는 게 나로써도 살짝 당황스럽고 쌤들에게도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모르겠다. 엉엉

다만 앞으로는 평화여행을 통해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너무 공정여행에만 포커스를 잡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공정여행만 생각하느라 정작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깨우치지 못하는 채로 시간이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에서야 면담을 통해 많은 것들을 깨우쳤지 중간중간 일정을 진행하면서는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게 있다면 필리핀에 있으면서는 몰랐지만 나중에(그게 언제가 될 진 모른다. 먼 미래일 수도 있고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깨우치리라 믿는다.) 필리핀에서의 평화여행을 생각하면서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황당무계한 글 속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느끼기에는 우리의 뇌가 아직 덜 발달된 것 같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차차 우리가 더 성장하고 과거를 돌아보면 필리핀에서의 여행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다시금 깨우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조건 지금 당장 필리핀해외이동학습의 목적을 달성하란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당장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라도 간디학교가 원했던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 때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목적은 달성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결론은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 손채은

**필리핀과 한국 서로 비슷한 점은 무엇이었고, 다른 점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 내가 생각한 필리핀에 대한 이미지는 가난하고 우리보단 못산다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처음 들린 곳, 마닐라는 우리나라와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도시였고 생소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나? 하는 의문도 들게 해줬다. 사람들도 그렇고 마닐라의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한 것 같다. 그냥 발달된 문화라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곳은 마닐라뿐인 것 같다. 다른 점이 있다하면 필리핀은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굉장히 친한 것 같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운전사가 차를 세워 인사를 하는 것만 해도 몇 번 봤는지 모를만큼 많이 본 것 같다. 마을 사람들 끼리든 사람들 끼리든 많이 친한 것 같다.

**필리핀에서 본인이 나누어 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글쎄, 내가 나누어 준 것이 뭐가 있나. 일을 가장 보람치게 했다고 느낀 곳은 바공 실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저 아이들에게 조금 이나마의 행복한 시간을 나누어 준 것 같다. 비록 내가 좀 지치고 몸이 힘들긴 하지만 애들을 안아주고 손잡고 놀아주고 색종이 접기도하며 그런 소소한 행복을 나눠준 것 같다. 또 고아원에서 머리 끈 만들기를 하며 그들에게 꾸미고 다닐 수 있는 무언가를 나눠준 게 아닐까(ㅋㅋ). 얻은 게 있다면 그들의 에너지. 우리보다 훨씬 힘차고 끝없는 에너지에 놀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닮아간 것 같다.

**공정여행을 통해 느낀 점, 좋았던 점, 보완할 점.**

이번이 공정여행을 떠난 게 처음인데 생각보다 막 힘들진 않았던 것 같다. 느낀 점이 있다면 내가 편하게 생활하는 관광만이 재미난 게 아니라 현지인들과 어우러져 지내는 게 불편보다는 재미가 더 느껴졌다. 현지인들과 어우러져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다.

**평화 여행을 통해 ...**

드디어 고대하던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왜 필리핀이 평화 여행을 다녀오는데

선정됐는지 알게 된 것 같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생활을 하면서 평화를 과연 경험할 수 있을까. 그저 투정만 부리다 끝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므로써 또한 이 나라의 풍경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다. 배낭을 짊어지고 곳곳을 돌아다녀 훨씬 더 많은 풍경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물론 이번이 처음 여행이라 우리가 훨씬 더 힘들었을 부분이 있겠지만 초반에 일정 배분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원래 그 일정에서 의도한 무언가를 느끼지 못한 것도 많은 것 같다. 앞으로는 일정 배분을 잘 해서 잘 지내다 왔으면 좋겠다:-)

## 송륜근

필리핀과 한국은 서로 비슷한 점은 무엇이었고, 다른 점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우리가 처음에 아시안브릿지를 갔었을 때 여기는 한국과 다르게 기술들이 뭔가 더 투박한 느낌을 받았다. 차 생김새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한국과 이질감이 들었다. 그리고 게이트를 지나갈 때 가드들이 검사를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물론 한국도 검사하는 동네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유명한 가게면 가드들이 있다. 그렇게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치안이 좋지 못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총기 사용도 금지 되어 있고 정말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듯 했다. 마닐라는 대단한 도시였다. 마치 서울 같았다. 어떤 곳은 명동 같기도 했고 좋은 곳은 진짜 강남보다 좋았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웬만한 한국인 보다 잘 살 거 같았다. 근데 그 좋은 공간을 한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게 충격 이였다. 대기업도 아닌 그냥 쉽게 말해 가족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필리핀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궁금했다. 땅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물이나 전기등도 갖고 있다고 했다. 국가가 관리 하던, 관리를 하는 걸 당연히 여기던 나예겐 낯선 풍경 이였다. 그래서 여기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말이 거짓은 아닌 거 같았다. 바공 실랑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충격적 이였다. 오자마자 제 3의성들을 만났다. 여기서도 한국과 필리핀의 다른 점을 느꼈다. 우리나라는 '나는 게이라고 말하면 다들 일단 약간의 거부감을 갖는다. 빠끌라(트랜스젠더)같은 사람이 있다면 징그럽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 김조광수씨의 당연한 결혼식만 봐도 그렇다. 축하 해주면 사람도 있지만 오물을 들고 와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솔직히 내 생각으로는 한국은 유명한 연예인 아니면 제 3의성을 갖고 살기 힘든 거 같다. 하지만 필리핀은 다르다. 그들은 그냥 그런 사람도 다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 같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가 하겠지만 다들 딱히 별 신경 안쓰는 거 같다. 그래서 여기는 참 성별 구분하며 살기 어려운 나라 같았다. 그리고 여기는 교통수단이 다양하다. 군인들이 쓰던 트럭을 개조해서 지프니를 만들어 사용하고 트라이시클, 페디캡 이라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옆에 자리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트라이시클 가격은 멀리 안 나가면 그 지역 안에서는 9페소(한화약270원) 밖에 안한다. 무게는 상관하지 않는다. 지프니 는 학생은10~11페소, 어른은 12페소이다. 바공에서 지내면서 많은 걸 봤다. 우선 여기 교육 시스템이 우리와 비슷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미국이 있는 거 같다. 여기

도 영어를 완전 자기 언어 배우듯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최소 2개 국어를 할 줄 안다. 그리고 만약 자기 부족이 있다면 부족어도 배워야 한다. 바공의 문화는 한국 하고 약간 비슷 한거 같다. 한국이 워낙 필리핀에서 유명한 나라기도 해서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도 방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광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과 문화가 많이 비슷하다. 그리고 동네가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웃끼리의 정이 넘친다. 어디는 가도 서로 아는 사람이 꼭1명쯤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키양안으로 넘어왔다. 여기는 시골이지만 사람들은 잘 살아 보였다. 집이 의리의리하다. 여기는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걸 별로 못 느꼈다. 그냥 우리 덕산 시골 같은 느낌이랄까? 특히 한 점은 여기 사람들은 개를 완전히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우리는 반려견이라곤 하지만 완전히 풀어놓고 키우지는 않는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그냥 개는 가족이다. 그래서 목줄도 없다. 같은 가족인데 묶어놔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냥 우리 사람처럼 자유롭게 다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바공실랑안 다음부터 뭔가 다른 점을 못 찾겠다. 문화나 역사 이런 건 그냥 아예 다른 지역이니 확실히 다르다. 비슷한건 이 사람들도 역시 밥심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런지 농기구도 우리와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여기는 수확하는 걸 엄청 신성시 여긴다. 우리도 역시 수확은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는 좀 느낌이 달랐다. 그래서 필리핀과 한국은 서로 비슷하게 닮아있는 거 같다.

**필리핀에서 본인이 나누어 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필리핀에서 나는 나의 노동력과 돈, 그리고 정을 나눠주고 왔다. 돈을 나눠줌으로서 그들과 만날 수 있었고 노동력을 나눠줌으로서 그들에게 함께 어울리며 도움도 줄 수 있었고 정을 나눠 줌으로서 나 역시 그들에게서 따뜻한 정을 받을 수 있었다. -륜근 헛소리 中-

필리핀 바공실랑안에서 씨키오 바칼 아이들에게 처음 접하는 활동을 해줬다. 종이접기, 비눗방울, 풍선등 여러 가지를 하며 같이 놀았다. 난 아이들에게 정을 받았다. 그리고 ART class에서 아이들에게 사물놀이와 아리랑, 택견등 한국의 문화들을 가르쳐주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 시설을 매우 열약했다. 1곳은 교실 하나만 있고 아이들은 많았고 다른 1곳은 교실이라기에 애매한 큰 마당이 있었다. 이런 걸 보며 나는 유치원에서 참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씨키오 바칼에 가서 나의 노동력과 우리의 돈을 이용해 그곳 어린이 집에 책상 3개를 만들어 주고 왔다. 그들 소유의 책상이 생긴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끼고 동시

에 딱 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배부름을 주었다. 영양실조에 걸릴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걸 보면서 내가 만든 음식이 아이들의 영양실조가 낫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뿌듯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망고나무와 깔라만시 나무 묘목을 심어주고 왔고 강가 주변에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맹그로브 나무 묘목도 심고 왔다. 그 곳의 개울가를 보면서 그래도 내 동네 개울가는 매우 깨끗한 물이 구나 생각했다. 거기 수질은 정말 심각했다. 바공에서 나는 내가 정말 청결하고 쾌적한 동네에 살았었고 살고 있고 그래서 다행이라는 마음을 얻었다. 그곳 단체 BSYF와도 교류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많은 걸 얻었다. 제3의성들을 보는 시선이라든지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생각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이 지내면서 쌓인 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키양안에서는 도서관에서 아이들 수업해주고 책 등록해주고 당구장에서 알바하고 계단식 논 쌀 수확도 함께 하고 모마 나무 묘목도 심어주었다. 얻은 건 홈스테이 가족들과의 정과 자연경치다. 나가카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도 공사해주고 수업도 해주었다.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다는 그 기쁨 하나로 높은 위치에 있는 학교까지 가는 걸 보고 나는 공부하기 쉬운 환경에 살면서 그거에 익숙해져서 싫다는 생각도 하며 살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바나우에나 바타드에서는 계단식논 보수 해줬다. 몸바키(주술사?)할 아버지들의 축복을 얻었고 자연경치를 봤다. 바기오에서는 예술가들의 활동에 관심을 주었고 나는 드림캐쳐와 이푸가오 전통춤을 얻었다. 두마젯티에서는 나뉘준건 나의 마음 밖에 없다. 얻은 건 바다 경관 반다망가, 티니클링, 그리고 술에 대한 내 후회 밖에 없는 듯하다. 내가 뭔가 필리핀에서 얻은 건 많은 듯한 느낌이다. 그래도 아직 머리에 있는 걸 밖으로 빼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많은 활동을 한 탓인지 뭔지 앞으로 그런 생각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야 겠다.

### 공정여행을 통해 느낀 점, 좋았던 점, 보완 할 점

공정여행을 처음 들었을 때 호기심이 들었다. 공정여행이 대체 뭘까? 그럼 내가 여태껏 해왔던 것들은 공정하지 못 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대전으로 공정여행을 떠났다. 거기서 많은 걸 봤었다. 대전에는 할머니 맥이 있는데 그래서 그 거리들을 많이 지나 다녔는데 여기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 처음 공정여행을 하면서 깨달았다.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알면서 여행해야 하는 구나……. 돈도 함부로 쓰지 않는

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가 쓰는 돈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그 지역을 위해 쓰이게끔 돈을 쓰는 것도 공정여행의 일부분인 것도 배웠다. 그렇게 필리핀으로 공정여행을 떠났다. 처음에 우리는 필리핀에 대한 설명을 무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체험해보기도 했고, 아쉬웠던 점이 필리핀은 3개국 식민지 지배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곳을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리고 바공실랑안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 등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곳 사람들과 놀고 교류하고, 그곳을 떠난 밤 애들도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나도 많이 아쉬웠다. 그 때 느낀 점이 공정여행은 어느 곳을 떠날 때 떠나기 싫고 아쉽다는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 같다. 왜냐면 그곳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현지인에게 듣고 그 사람들과 놀고 일하며 지냈으니 어느 누가 정이 안 들고는 못 배길 거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계속 놀기도 조금 놀았지만 봉사활동 위주였던 프로그램인데 과연 이게 진짜 공정여행인가? 그냥 봉사 활동하러 해외에 온 거 같았다. 물론 거기서의 프로그램들은 다 하나하나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여행이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지는 나는 의문이었다.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었다. 난 지금까지 여행이 아닌 관광을 하고 있었구나. 여행가는 곳을 위한 게 아닌 오직 내 위주로만 되어있었던 거 같았다. 키양안(나가카단 계단식 논)에서는 너무 좋았다. 처음부터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지내가 와서 그런지 홈스테이집이 궁전 같아 보였다. 가족들도 친절했다. 다만 아쉬웠던 건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적었다는 점이다. 우리 홈스테이 가족들도 원하던 눈치였는데 우리가 늘 밖에서만 활동하고 집에 들어와선 밥 먹고 자기만 해서 그들과 함께 놀 수 없어서 아쉬웠다. 키양안 여행은 재미있었다. 뭔가 막 임팩트 있고 그렇진 않았지만 뭔가 물 흐르듯이 지나갔던 1주일 이었다. 키양안에는 씨트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참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거 같아 보였다. 젊은이들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는 반면에 그들은 남아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 이었던 나가카단 계단식논을 지키고 있다. 그들을 보며 나도 이 담에 커서 내가 살던 고향을 지키고 있을 까 아님 모른 체 하며 지내고 있을 까 궁금했다. 그렇게 1주일을 보내고 바나우에로 갔다. 거기도 계단식 논이 있는데 나가카단 보다 더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20페소 신권 지폐 뒷면에도 나온다. 근데 저번보다 더 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아마 점점 더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나이 먹어가는 농부들만 남아서 그런지도 모른다. 바나우에에서 1박2일을 머문 후 바타드 계단식 논으로 이동했다. 가는 길은 굉장히 멀었다. 얼마나 멋진 풍경을 숨겨 뒀으면 이리도 가는 길이 힘든 건지 생각 했다. 마침내, 도착을 했다. EBS 다크에서 나오던 풍



경이 보였다. 신기했다. 완전 산 몇 개를 통째로 논으로 바꿔 놓은 모습은 진짜 장관 이었다. 어떻게 저걸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생각이 든다. 그래도 2000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거기서 계단식 논도 둘러볼겸 탐피아 폭포로 향했다. 가는 길은 정말 대박 이었다. 올라가는 길은 그래도 갈만 했다. 근데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엄청 가팔라 보였다. 그 길을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오싹했다. 멀고 먼 길을 걸어가니 조금씩 폭포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봤는데 오는 동안의 피로가 싹 풀릴 만큼 폭포는 웅장하고 시원했다. 높이도 꽤 높았다. 산속에 이런 장대한 폭포가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계단식 논 복원, 보수에 같이 동참 했었는데 보니까 엄청 기술이 필요한 거 같았다. 그 곳 농부에게 대충 평범한 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한3~5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근데 논 보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적절한 기술도 필요하고 해서 뭘 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우리가 모내기를 했으면 더 도움도 되고 좋았을 거 같다. 그리고 우리는 마닐라로 돌아와서 공감만세의 공정여행을 끝냈다. 이렇게 글로 정리하니 참 4주가 짧게 느껴진다. 솔직히 아직도 ‘공정여행이란?’ 이 의문이 해결이 안됐다. 그래도 뭘지는 약간의 감이 잡힌 느낌이다. 돈도 함부로 쓰지 않으며 그 지역을 알고 그 지역 사람들과 지내는 것 그런 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미있게 지내는 게 공정여행인거 같긴 하다.

### 평화여행을 통해 느낀 점, 좋았던 점, 보완 할 점

평화여행은 솔직히 아직도 잘은 감이 안 잡힌다. 우리가 필리핀에 6주 동안 있으면서 평화여행을 했는데 그 중 4주는 공정함을 주제로 여행을 한 거고 나머지 2주는 쉬면서 자연체험을 했다. 이중에 평화란 무엇인가? 일단은 공정함이라는 거 자체도 평화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평화는 2종류가 있는 거 같다. 나 자신의 평화와 나 밖의 평화. 필리핀은 매우 더운 나라다. 건기와 우기가 있다. 그런데 요즘은 건기 때 도 비가 자주 내린다고 한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조금씩 있는 거 같다. 필리핀 자체도 차도 많고 에어컨도 많이 쓰고 그러지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 그리고 전기 사용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한 공장의 매연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 되고 바닷물이 자주 증발해서 비구름이 자주 형성 되는 거 같다. 그리고 필리핀은 바닷가로 둘러싸인 섬나라다 그러니 자연스레 그 구름들을 다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내 생각이다. 그러니 우리만의 입장을 내세우지 말고 평화롭게 서로 협약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걸 느꼈다. 필리핀은 동성애

자와 트랜스젠더가 많다. 우리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정체를 자유롭게 밝히는 걸 좀 힘들어 한다. '전세계 인구가 100명이라면' 책을 봐도 동성애자의 비율이 낮지는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라고 한다. 그래서 필리핀은 대단한 나라다. 사람들이 그냥 서로 인정하며 살고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필리핀에게 배워야 될 평화라고 생각한다. 또 필리핀은 7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살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이다. 그런데 민족 싸움 없이도 잘 지내는 거 보면 참 거기 사람들은 포용력이 높고 다들 평화롭게 사는 거 같다. 그 곳 사람들 평상시 모습만 봐도 늘 웃고 놀고 쾌활하게 생활한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지 않다. 호기심 어려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 같았다. 이런 정 많은 사회를 한국도 닮았으면 좋겠다. 늘 바쁘게 사는 한국에서 참 어려운 일 일거 같다. 나는 필리핀에서 내면의 평화를 잘 지킨 거 같다. 더워도 그 더위 자체를 그 나라의 특징이라 생각 하며 즐기려고 노력했던 거 같다. 그리고 비록 민족은 다르지만 그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계심 없이 그 사람들과 즐겁게 지냈던 거 같다. 솔직히 필리핀에 가기 전에 많은 생각이 있었다. '거기 사람들이 총 들고 있고 있으면 어떻게 강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게이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이 막 작업 걸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지?' 등이 있었는데 지내다보니 거의 쓸모없는 생각들이었다. 총은 경찰들만 들고 있고 강도는 만나본적도 없고 사람들은 다 착하고 제3의성들은 처음에만 약간 놀랐지 지내다 보니 다 같은 사람 이었다. 내가 이렇게 3의성들을 그렇게 거부감과 경계심이 들지 않는 것에 나 스스로도 신기했다. 물론 그들이 관심을 보이면 조금 부담스럽긴 했다. 키앙안이나 바나우에, 바타드는 자연평화 쪽 이여서 많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그래도 계단식 논을 보면서 이걸 앞으로도 보존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마을 젊은 이들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도시에 나갔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는 연세 있으신 농부들 밖에 없다. 그런데 그분들마저 계단식 논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걸 보고 돈은 참 대단 물질인거 같다는 생각 했다. 만약 그런 현상이 계속 된다면 계단식 논은 점점 파괴되어 갈 거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의 존재성도 사라진다. 그들은 계단식 논을 만들었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이푸가오 족이다. 그런데 그 논이 없다면? 역사 자료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정체성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돈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돈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도 한다. 필리핀이 돈 문제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어딜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나 빈부격차가 보인다. 이거는 돈 많은 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고치기 힘들다. 내가 이번 평화여행에서 느낀 건 이정도 이다.

## 안다연

### 한국이랑 필리핀이랑 비슷하거나 다른 점.

내가 필리핀에 가서 처음 한국과 다른 점을 느낀 점은 날씨였다. 공항에서 출발 할 때는 더웠지만 공기가 가벼워서 좋았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내리자마자 확 무거워지고 숨이 막히는 공기 덕분에 아, 내가 드디어 필리핀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필리핀에 있을 때에는 한국과 필리핀이 다른 점이 많아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맘을 편히 먹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오니 막 기억에 남는 건 없었다. 여행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적응했던 거 같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크게 남는 것은 사람들이었다. 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필리핀이 옛날 한국 같이라며 그리워하셨다. 그건 건물이나 시설도 그랬지만 사람들도 그랬다. 필리핀 사람들이 정이 많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 느꼈다. 겨우 일주일정도 본 우리를 잘 챙겨주고 먼저 연락을 해주는 것을 보고 내가 한 것은 없지만 이 만큼이나 나를 좋아해주는구나, 싶었다.

무표정으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길이 어디냐고 질문하자 웃으면서 답해주기도 했다. 물론 한국에도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점점 내가 나이를 먹어 가면 먹어 갈수록 사라져 가는 것 같다.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비슷한 점은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였다. 잘 사는 사람들 집이 모여 있는 곳은 내가 사는 곳 보다 더 좋고 화려했다. 에어컨은 기본이고 냉장고는 두, 세 개 씩은 있었다. 커다란 창문도 여러 개 있었다.

하지만 빈민촌 같은 곳은 판자와 판자를 이어 집으로 만들었고 그나마 잘 사는 집은 시멘트로 벽을 만들었다. 창문은 기본적으로 없었다. 비가 오면 천막을 내렸다. 냉장고가 없는 집들도 있었다. 그래서 냉장고가 있는 집들이 얼음을 팔기도 했다. 변기는 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을 부어야 하는 거였다. 그런데 물이 부족해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어려웠다. 변기 커버는 당연히 없었다. 우리나라의 비하면 확실히 시설이 좋지 않았다.

여성들의 정치참여도 많았다. 우리나라보다 여성지지율이 커서 부러웠고 이런 것은 배워야 할 거 같았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처럼 나라에서 관리하는 대중교통이 없다보니 시민들이 일어나 지프니, 트라이시클이 생겨났다고 했다. 공공으로 관리 하는 게 없으니 화장실을 갈 때 마다 돈을 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필리핀과 한국의 다

른 점을 찾으려하면 정말 많다. 시설이나 환경, 사람들 성향이나,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은 엄청 많지만 비슷한 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가족들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챙기고 언니와 동생이 다투는 그런 일상은 우리와 비슷했다. 문화와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늘 있는 일상은 비슷했다. 동생과 언니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심부름을 누가 할지 정하는 것과 사방치기 같은 전통(?) 놀이를 자주하기도 했다. 이런 일상들은 우리와 비슷했다.

내가 필리핀에 가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필리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였다. 다들 전통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역사박물관 같은 곳은 필리핀 역사를 미니어처로 하나하나 만들어뒀다. 이런 점들이 많이 부러웠다.

사실 필리핀에서 다른 것과 비슷한 점을 잘 느끼지 못 했다. 당시 여행 할 때는 느꼈던 거 같은데 한국에 와서 기억이 사라진 거 일수도 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많이 느끼고 있었는지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거 같다. 그래서 필리핀과 한국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많이 찾지 못 한 거 일수도 있다.

나는 필리핀을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이 되어 여행을 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이 정도로 이번 여행은 나에게 많은 느낌을 준 여행이다.

### 필리핀에서 얻거나 준 것.

필리핀에서 얻은 것은 엄청 많았다. 친구와 문화, 그리고 정, 수 만 가지를 느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다. 먼저 인사하기도 어려웠고 말을 걸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기 어려웠다. 나에게 먼저 와서 인사하고 이름을 물어봤다. 그러다보니 그들 사이에 끼어서 어느 순간 자연스레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있었다. 일주일도 안됐는데 빨리 변하는 내가 신기했다.

나는 일주일만 만난사람들끼리 연애도하고 너무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경험해보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연을 만들고 추억을 만드는 것에서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처음 일정이었던 바공실라만에서는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 말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것도 많았다. 필리핀 사람들이 먹는 음식하고 간식거리, 걸어 다니는 거리, 자주 놀러가는 것 등등을 알 수 있었다. 말이 잘 안통해서 어려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 더 소통하려던 것들이 많았다.

사실 나는 애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순수한 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

애기들만 보면 어찌해야할지 몰랐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애기들이 먼저다가 와주고 말을 걸어줘서 기뻐다. 애기들이 영어를 못 해서 말로는 소통 할 수 없었지만 몸으로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먼저 안겨주고 손을 잡았다.

내가 준 것은 별로 없는 거 같다고 느꼈다. 짜인 프로그램에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나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맙다고 할 때 왠지 모르게 미안했다. 열심히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대충 대충하던 프로그램도 있었다. 날씨가 덥다보니 마음은 열심히 하려고 100%로 까지 준비했지만 몸은 마음에 비해 50%로도 못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사실상 필리핀에서 무언가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곳은 바공 실라만이였다. 처음 필리핀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고 가장 교류가 많았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았던 거 같다.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누가 누구 좋아하고 것과 마을에 있었던 작은 일화나 여기는 무엇이 유명하다 등등, 필리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기에는 가장 좋았던 경험들이였다.

필리핀에서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과 말을 거는 법과 즐겁게 노는 법을 배웠다. 그 곳에서는 자신이 무슨 상황이라도 즐겁게 즐기고 신나게 노는 문화가 있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과하고 신나게 춤을 추고 뛰어 놀았다. 땀을 흘리고 물이 부족해서 샤워를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신나게 뛰어 노는 것을 보며 여기 사람들은 흥과 끼가 넘치는 거 같았다.

나는 내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많이 배웠다. 좋은 인연을 만들었고 즐거운 추억도 받았다.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나에게 남겨준 그들에게 감사하다. 난 그들에게 언제나 고마워하고 그들을 언제나 그리워 할 거 같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다. 나에게 소중한 추억과 기쁨을 준 사람들은 바공실라만이 아니라도 많다. 너무 좋아서 영어를 못 하던 나도 말 한마디 더 걸고 싶어서 안달나기도 했었다.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기쁘다. 필리핀 일정 중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좋은 기억과 추억을 주웠다. 많이 그리울 거 같다.

내가 준 것은 그들에게 추억정도가 아닐까 싶다. 내가 준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작은 힘 하나하나 모아서 큰 것을 졌지 않을까 싶다. 내가 나 혼자 준 것은 없고 다 같이 준 것은 넘쳐나는 거 같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나는 모른다. 받은 사람만이 알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소중한 무언가가 됐으면 좋겠다.

공정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그리고 보안했으면 하는 것.

사실 아직까지도 공정여행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물론 평화여행과 다른 점도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던 공정여행은 평화여행과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정여행은 여행자와 현지인이 같이 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처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정여행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편한 숙소를 쓰지 않고 현지인과 지내다보니 아, 이런 게 공정여행의 첫 발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처음에 크게 다가 온 것은 공정여행은 여행을 하면서 답답한 느낌이 전혀 안 들었다. 여태 했던 여행도 자유로웠지만 많이 남는 게 없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갑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공정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여행은 답답함과 갑갑함이 없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좋았다.

여행을 하면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마음으로 배우는 게 많았다.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 즐거웠다. 여행을 하다가 알아가는 게 너무 깊이 남아서 즐겁게 해주었다.

공정여행을 하면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던 사람이 있었다. 힘든 게 있다면 그 나라 환경이었지만 여행을 통해서 힘든 게 없었다.

공정여행이란 것은 뒤에 너무 많은 걸 남기는 거 같다. 여행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남기기도 한다. 그게 물건이든, 내 기억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너무 많은 걸 남기는 거 같다. 내가 감당하지 못 할 정도로.

보안할 점은 딱 하고 느낀 것은 없었다. 공정여행을 통해서 내가 갔던 나라의 문화를 느꼈고 계속되는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없었고 학교에서 원하는 자연체험도 많이 했던 거 같다. 그리고 문화 교류가 많이 되었던 거 같아서 기뻐다. 연대활동도 우리가 갔던 곳 마다 있어서 좋았던 거 같다.

내가 느끼기에 여행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은 없었던 거 같다.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다보니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아쉬울 뿐이다. 이번 여행은 여태 내가 했던 여행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준 여행이다.

**평화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그리고 보안했으면 하는 것.**

평화여행과 공정여행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 평화여행은 무언가 따스하고 아무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여행의 느낌이 더 클 거 같다는 생각만 든다. 사실상 평화를 위해 배우고 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평화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알고는 있지만 입으로 말 해보라면 말 할 수 없는 게 평화였다. 이번 여행이 공정여행이면서 평화여행이라는 것은 거의 마지막인 정리기간에 알았다. 생각해보면은 여태 했던 여행이 평화 랑도 관련되어 있는 게 많아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평화가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있었다. 그런 평화들이 다시 생각해보면 여태 있었던 영행들과 잘 어울렸기 때문에 만족한다. 보안해야 할 점은 딱히 느끼지 못했던 거 같다.

## 이가원

### 한국이랑 필리핀이랑 비슷한 점과 다른 점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나왔을 때 습기와 함께 짜증이 몰려왔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의 느긋한 성격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같은 자리에서 한참을 기다려서 성질이 날 때쯤에 겨우 에어컨 빵빵한 차에 탈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워서 못 참을 날씨에 옆에서 스키니를 입고 느긋하게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사람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과는 달리 느긋한 것 같다. 필리핀에서는 무엇을 하던 한국에서 느끼는 빨리빨리 라는 노이로제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에서 빨리 움직였던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답답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반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도 있었다. 마닐라 같은 큰 도시를 갔다가 바공실랑안 같이 가난한 동네를 들어가니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사는 구조가 눈에 띄었다. 한국도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같은 구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에 무관심하고 있다.

### 필리핀에서 얻거나 준 것

필리핀에 가기 전 준비가 덜 되어있었기 때문에 정말 별생각 없이 필리핀에 도착했다. 큰 기대도 없었고 실감도 나지 않아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쉽게 마음열지 못했고 내가 무언가를 준 것도 별로 없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에게 쉽게 말을 걸어왔고 영어가 안됐지만 대화가 통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다음번에 해외여행을 할 때 무엇을 해야 할 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알게 되었다.

### 공정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과 좋은 것 그리고 보완했으면 하는 것

해외여행을 필리핀을 제외하고 세 번을 갔었는데 세 번 다 관광의 느낌이었고 현지인과의 교류보다는 그저 관광지에서 구경을 하는 일정이었다. 그리고 숙소도 주로 호텔을 사용했다. 굳이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관광의 느낌을 갖는 여행을 자주 했었다. 그래서 이번 필리핀 여행은 나에게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다. 원래 봉사활동에 관심이 없었고 홈스테이를 해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



었다. 공감여행을 해보니 이제껏 해왔던 여행의 잘못된 점이 보였다. 이 여행에서 하나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대기업의 물건이나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점이다. 최대한 현지인들과 친해지려고 했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주로 sm몰 같은 곳을 들렀고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었다. 일정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대기업을 사용하지 않는 노력을 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 평화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과 좋은 것 그리고 보완했으면 하는 것

학교에서 4년 동안 학생회 같은 공동체의 책임을 맡아서 하는 일을 열심히 한 적이 없었다. 그나마 학생회도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었고 무언가를 나서서 맡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했다.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다보니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필리핀에 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보았고 봉사의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이번 여행이 좋았다. 딱히 아쉬웠던 점은 없었고 다음에도 이런 여행을 가보았으면 좋겠다.

## 장우정

### 한국과 필리핀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꼈던 건 엄청난 열기, 습기. 내가 진짜 필리핀에 왔구나 하고 실감이 났다. 그리고 공항에서 이동 중, 질서 없이 도로에 가득 차 있던 지프니와 트라이시클 그리고 오토바이들, 또 횡단보도하나 없는데도 무심하게 차길을 가로지르던 사람들을 보며 또 한 번 여기가 필리핀이구나... 생각했다. 나중에 점점 적응하다보니 여기는 승용차가 거의 없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그래서 택시만 봐도 신기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필리피노들은 우리에게 참 관심이 많았다.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사람과도 친구가 됐고 어린 아이들은 먼저 쫓르르 다가와 말을 걸어주기도 했다. 처음엔 민망하기도 하고 어색했지만 우리를 향한 시선에 적응하고 나니 고맙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일 때도 있었다. 지금도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메시지도 종종 오고 우리가 그림다며 사진도 올려줘서 괜히 짱하다.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인들은 필리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나도 필리핀에 가기 전엔 잘 몰랐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정도 많고 참 긍정적인 사람들이다. 정말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참 좋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더 크게 느껴졌다. 물가도 너무 싸서 많은 돈을 가져가지 않아도 필리핀에서는 부자가 된다. 우리는 공정여행을 하지만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쇼핑물만 가면 돈은 평평 쓰는 우리가 모순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에 좀 마음에 걸릴 때도 있었다. 비슷한 점은 사실 특별히 와 닿은 건 별로 없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필리핀은 스페인에게 지배당했던 식민의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여기저기 남아있는 흔적들은 지울 수 없는 것? 또 빈부격차가 커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점.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라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정이 많은 것도 비슷한 거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비둘기처럼 필리핀엔 개가 정말 많다.

### 필리핀에서 얻거나 준 것

필리핀 해외 이동학습을 통해서선 처음으로 관광이 목적이 아닌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여행 자체가 나에게서 많은 배움이였다. 우선 내가 얻었다고 느끼는 것은 그들에게 받은 끝없는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것 같다. 난생 처음 보는, 진짜 사람 사는 곳이라고 믿기지 않는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24시간 신나고 긍정적이다. 지치지않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다. 다 가졌으면서 더 욕심부리고 짜증내고 불평만 했던 기억이 스멀 스멀 올라와서 혼자 좀 민망했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과는 다른 문화에 녹아들어 살고있는 사람들 속에 함께 지내려니 어색한 부분도 많았다. 선배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변기커버 없는 변기에서 어떻게 싸라는 건지.. 뺨고 올라가기엔 발이 빠질 것 같고 그냥 싸기엔 다리가 너무 아프고ㅋㅋㅋ 나중에 BSYF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물어보니 형편이 모자라 그런 곳에 돈을 쓸 수 없다고 했다. 그 답변을 듣고 나니 나는 또 복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리피노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도 무리없이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다. 아무리 언어가 달라도 사람대 사람으로 대화를 하면 안 될 것이 없다. 물론 내 저질영어에 상대방은 살짝 불편했을거란 예상도 조심스레 해 본다...

내가 필리핀에 준 것이 무엇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느끼고 받았을지 잘은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편견을 갖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다. 사실 필리핀에서 하는 활동들이 우리가 가진 능력들을 발휘할만한 활동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는 게 다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우리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줬으면 좋겠다.

### 공정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공정여행은 나 혼자만 즐겁고 편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가는 모든 곳의 환경이나 인권등을 중요시 하면서 모두가 공정한 여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정여행은 말만 들어봤지 직접 해보긴 처음이었다. 공정여행을 하면서 내 생애 처음으로 외국여행 중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해봤는데, 멀게만 느껴졌던 외국인들이 나와 별다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내가 여태껏 생각했던 여행의 이미지와 직접 갔던 여행들

은 내 돈 쓰기 바쁘고 나만 부유하고 반짝이기 바쁜 여행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공정여행'을 알게되고, 꼭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는 것이 나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 즐겁고, 그 곳의 일상을 함께 해 보는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더불어 내가 갔었던 관광을 목적으로한 여행들이 아깝기도 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현지인들의 삶이나 문화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내 사진 찍고 내 기념품 챙기기 바빴던 게 허탈하게 느껴졌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함께 했던 공정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현지인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던 것이다. 필리핀 전체 일정 중 홈스테이 했던 집과 가족들이 가장 생각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일주일이었지만 그들과 나눴던 대화들, 가족처럼 챙겨주던 것들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 평화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평화' 덕분에 3년 내내 학교를 다닌 결과 4년째에 접어들면서 해외이동체험학습으로 필리핀 평화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문제는 공정여행과 평화여행이 뭐가 다른지 찢찢 매고 있는 학생들..!! 사실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대체 왜 두 가지에 꼭 구분을 두려 하는건지 쌤들이 살짝 원망스러웠지만 다 부질없는 원망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든다. 어쨌든 그래서 평화여행은..공정여행보다 좀 더 포괄적인 것 같다. 공정여행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일 수 있는데 평화여행은 개인마다 생각하는 평화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른 게 당연하니까. 내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평화라고 느껴진 것은 공정여행과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지만 상대방과 나 모두 행복했던 것 같다. 관광객 놀이를 한답시고 허구한 날에 돈을 ping ping 쓴다거나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또, 평화의 정석으로 따지면 폭력이 가해지는 부분도 없었다. 평화여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만 생각하는 여행을 했더라면 주변을 둘러보지도 신경 쓰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우월감으로 상처를 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생각이 현지인들과 섞여 지내며 들었다. 내가 과연 평화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은 그저 나의 잘난 것만 뽐내려는 사람들로 보일 것 같았다. 그로인해 여행지의 현지인들에게 열등감을 준다면 그 또한 일종의 폭력이 될지도 모른다.

다른 주제에서 많이 말했듯이 이런 공정여행, 평화여행을 한 덕분에 그동안

해왔던 여행들이 오로지 나에게만 좋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래서 이번 여행 덕분에 좋은 여행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서 좋다. 딱히 졸업을 한 후에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고민을 하던 나에게 이런 새로운 만남을 통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계속 여행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정기완

### 한국과 필리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6주 동안 필리핀에 다녀왔다. 일단 비슷한 점은 우리는 여행초반에 마닐라를 돌아다니며 필리핀에서 활동할 워크샵을 하고 박물관을 다니며 필리핀의 역사, 문화, 전통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갔던 아얄라박물관이 개인소유라는 것이다. 아얄라박물관에는 지금까지 필리핀의 역사가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다. 이런 박물관을 정부가 아닌 개인이 만들려면 어느정도 규모의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지? 깜짝 놀랐다. 필리핀의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못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맞다. 필리핀 전체 국부의 60%를 필리핀 15개 명문가문들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필리핀의 저소득층은 월평균 7000페소(한화21만원) 소득을 가지고 생활한다. 이런 빈부격차가 필리핀에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한국도 만만치않은것 같다. 우리나라의 최저소득층은 월평균 135만원의 소득을 남기고 최고 소득층은 월평균 774만원의 소득을 남긴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의 1%사람들이 한국 전체 국부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하여튼 이런 빈부격차가 한국과 필리핀의 비슷한 점인 것 같다. 그리고 저번에 가족들과 왔을 때 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른들이 지금 현재 필리핀 느낌이 대한민국 1980년 느낌난다고 하시는데 나는 80년대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다.

한국과 필리핀의 다른 점은 한국은 한반도가 좁기 때문에 각 지역의 문화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필리핀은 여러 섬들이 뭉쳐져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것 같다. 그리고 필리핀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 이르기보다. 천천히 여유로운것 같다. 우리가 초반에 바공실랑안에서 모일 때 약속시간에 제때 모이는 일이 드물었다. 맨날 10분~20분 늘어지고 그랬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 왜 필리피노들은 이렇까 생각해봤는데 모르겠다. 그냥 이 지역 사람들의 특성? 인 것 같다. 그리고 필리핀정부는 당연히 나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물, 전기 이런 것들을 관리 안한다. 그냥 개인이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냥 신기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요즘 민영화 문제 때문에 난리법석인데 여기는 뭐 아무렇지도 않나? 시위안하나? 궁금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개방된 성문화를 가지고 있다. 게이, 레즈 이런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을 꺼려하지도 않고 자신있어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또 이러저런 공통점 차이점들을 보았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모두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 평화여행을 하면서

이번 6주간 평화여행을 하면서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평화란 네모다. 라고 딱 단정 짓기는 힘들었다. 생각했던 것들이 “함께 다 같이함께 사는 것?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간다면 그것은 평화일까 나의 이윤, 나의 편안, 나의 행복만 생각한다면 평화가 세상에 실현되기란 힘든 것 같다. 이걸 우리가 했던 필리핀 여행에 관련지어보면 우리가 필리핀 이동학습을 했던 이유도 이것인 것 같다. 우리가 만약 공정여행이 아니라 그냥 관광이 였다면 어땠을까 호텔에서 자고 맨 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관광산업이 잘 발달된 관광지에 가서 구경하고 이랬다면 여행을 하는 도중 평화를 지켰다. 라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세계 문화유산인 라이스테라스 같은 경우 관광객의 무차별한 관광으로 관광과 개발, 이촌향도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라이스테라스(계단식 논) 을 무너트리고 있으며 결국 이 현상들의 원인중 하나가 그곳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인 것 같다.

우리는 그래서 관광화개발이 잘된 라이스테라스와 아직 관광화개발이 안된 라이스테라스를 두 곳 다 가보았다. 확연한 차이점들이 있었다. 관광화개발이 안된 라이스테라스 논은 그렇게 멋있지는 않았지만 농업이 확실히 잘 돌아가고 있었고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은 그 쌀, 논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냥 라이스테라스 농업은 그들의 삶의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관광화개발이 된 라이스테라스는 일 판 정말 멋있었다. 딱 보면 감탄사가 나왔다. 하지만 그 라이스테라스에서 농사지를 사람이 없다고 한다. 농사지를 사람들이 다 관광산업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라이스테라스는 파괴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년이 라이스테라스는 많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이런 관광으로 2000년된 그들의 문화, 삶의 터전을 무너트리는 것이 평화일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 고향,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 그런 단체는 BSYP, 시트모라는 단체들이 있다. 우리는 그 단체들을 도와주며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다. 이런 활동가들은 딱히 돈을 바라고 일하지 않았고 자원봉사자 같은 느낌 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 자신의 이윤 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그래서 평화여행의 취지를 맞추기 위해 공감만세를 통해 공정여행을 갔고 여행하는 동안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행복에는 기준이 없는 것 같다. 이들은 이렇게 덩고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항상 웃으며 활동하고 장난치고 하는 이들이 진정 행복해보이고 평화로운 것 같다.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겠다.

## 공정여행을 하면서

나는 이번 6주간 공감만세와 함께 필리핀공정여행을 했는데 공정여행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공정여행의 정의는 우리가 여행에서 쓰는 돈이 그 지역과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여행, 여행하는 이와 여행자를 맞이하는 이가 서로 성장하는 여행, 쓰고 버리는 소비가 아닌 관계의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내가 공정여행을 하면서 호텔이 아는 현지사람들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의 좀 더 깊

이 있게 빠져들 수 있었다. 첫 번째의 경우 빈민촌에 갔기 때문에 집이 넓은 곳에서 생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홈스테이 가족들과 계속 접촉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소통할 수 있었다. 그 가정에는 꼬마 남자애가 두명 있었는데 이름이 제이 제이와 말크 였다. 처음에는 낯가림하고 가족들과도 약간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진도 같이 찍고 시간이 지나니 어느새 친해지고 정이 많이 들어버렸다. 솔직히 먼저 다가와주고 웃어주고 나를 정말 많이 배려해 주었던 것 같다. 너무 고맙다. 마지막에 헤어질 때 다시 놀러오라고 그리울 거라고 하는데 내가 해주고 가는게 딱히 없고 받아가는 것만 많은 것 같아서 미안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저녁에 막 친구들 놀러오고 그럼 또 막 얘기하고 심심하면 그냥 나가서 처음 보는 친구들하고 농구하고 그냥 되게 뭔가 좋았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정말 즐거웠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내가 좀 더 영어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을 텐데 너무 아쉬웠다.

요즘 사람들은 패키지로 여행을 많이 간다. 가게 되면 비싼 호텔에서 잠을 자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벤을 타며 이동한다. 그리고 가이드가 해주는 설명을 들으며 구경을 한다. 나는 작년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패키지로 필리핀을 와봤다. 그때는 마카티라는 부자동네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진짜 그대로 가이드 아저씨의 설명을 들으며 구경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이드 아저씨가 필리핀에 대해 막 설명을 해줬는데 기억나는 게 없다. 그냥 보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여행을 달랐던 것 같다. 지프니 타고 이동하고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고 일일직업체험도 해보고 직접 만들고 시내 돌아다니고 공연하고 이렇게 활동하니 더 기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다.

요즘 필리핀에 여러 나라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그러므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라이스테라스 같은 경우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일손이 부족하다. 게다가 이지역 문화유산인 라이스테라스가 무너져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지역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해야하지만 관광 사업을 하러 마닐라나 큰 도시로 나간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해결할 수 있는게 공정여행이다. 내가 공정여행을 함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 관광이었으면 보지 못했을 걸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21명이라는 많은 인원이라 이래저래 오래 걸리고 자유롭지 못했다. 소규모였다면 좀 더 자유롭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여튼 이번여행은 나에게 앞으로 삶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 조익준

### 필리핀에서 느낀 점과 보완점

내가 필리핀에서 여행을 하며 느낀 점은 지역 하나하나 얘기 하자면 루손섬에 있는 마닐라는 참 오랜 세월 식민지를 격어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성장이 늦게 시작된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다. TV프로그램을 봐도 여기저기에 나오는 연예인 들도 모두 자기들에 개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발전 한 나라에 것을 따라 하는 경관이 드문드문 보이고 각자 자신에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지만 항상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들은 호화로운 그런 게 난 마음에 안 들었고 또 필리핀은 그렇게 자본주의가 심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나만 잘 살면 땡 아냐?' 이라고 살고 있는 것 같았다. 필리핀 안에는 19개의 부자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들을 대통령이 보고만 있으니 이 가문들이 날뛰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서 이런 현상들을 막아야 하는데 법도 아직 없으니 이런 상황이 벌어 지는 것이다. 가문과 가문 사이의 암살, 뇌물, 살인 등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일 것 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정부가 만약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당장에라도 취해야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정부가 필리핀 안에 있는 모든 대형 마트에 전구들을 다 LED로 바꾸고 남은 전기를 빈민촌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살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빈민 촌은 키양안처럼 바뀔 것이다. 보완점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정부가 사태를 파악해서 당장에라도 고칠 것.

### 평화여행과 공정여행

일단 내 생각에는 평화여행과 공정여행은 비슷 하다고 생각한다. 단체들과 접촉 하면서(bsyf나 시트모 같은 단체들)어려운 빈민 단체에 가서 봉사하고 계단식 논을 복원하고 다니며 여러 방면으로 많이 느끼고 그 안에서 여행을 관광과는 사뭇 다르게 여행을 하는, 우리가 가장 이득을 보며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서 얻은 만큼 무언가 전해주고 해주는 그런 여행이 공정 여행이고 평화여행은 그 공정여행 안에 모티브로 자리잡은 것이 평화여행 이라고 본다. 즉, 평화여행은 공정여행 속에 있는 것이다.

다른 점은 이름과 그 방식과 활동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 평화여행에서 느낀 점과 보완점

이번 필리핀 에서 공정여행 이라는 여행방식을 접목 시켜서 여행을 하였는데 정말 빈민 단체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쪽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어울리며 생활 하면서 기쁨과 아쉬움을 느끼고 계단식 논 복원작업을 하면서 고생을 했고 그 고생이 나에게 정말 큰 성장을 가져와 준 것에 대한 흐뭇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두마게테 에서 필리핀 간디학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조별 여행과 여러 워크숍 들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서 좋다.

## 최형규

### 한국이랑 필리핀이랑 비슷한 점과 다른 점

한국이랑 필리핀은 많은 점이 닮았다. 식민지를 당했던 것도 비슷하고 쌀농사를 짓는 것, 그에 따른 농경사회도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있다.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가난해도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필리핀은 가난하면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 필리핀에서 얻거나 준 것

얻은 것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이다. 정말 잘 대해주고 아껴주고 가족처럼 대해주고... 필리핀에서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싶다. 준 것은 딱히 없다.

### 공정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그리고 보완했으면 하는 점

공정여행을 하면서 지난 날들의 나의 모습을, 호화롭고 너무 편한 여행만 해왔고 바래왔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낮은 임금을 받으며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종사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공정여행을 하면서 좋은 점은 나 자신에게 많은 고민거리들을 던져 준다는 것이다.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딱히 없다.

### 평화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좋은 점, 그리고 보완했으면 하는 점

평화여행을 하면서 많이 안타까웠다. 우리가 만난 밝고 명랑한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 희망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마냥 웃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실은 평화여행을 하면서 고민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평화랑 연결되지...? 하지만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지구촌 평화를 지켜나가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또 지구촌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평화를 지켜내야겠다는 생

각을 했다.

좋은 점은 공정여행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게 많은 고민거리들을 던져 준다는 것이다.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딱히 없다.

7. 부록

로사 프로그램과 공감만세 프로그램 비교 - 황정인

	2014년	2012년
기간	4주 (총 6주)	4주 (총 8주)
인원	학생 19명, 인솔교사 3명, 공정여행가이드 1명	학생 20명, 인솔교사 2명, 필리핀 현지가이드 1명
기획	공감만세 (단체)	로사 (개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에 있어 문화적, 정서적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이 줄어들었다</li> <li>- 프로그램 초안기획 단계부터 소통해온 덕분에 인솔교사의 현지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수 있었다</li> <li>- 공감만세보다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일정을 진행에 상황별 조율이 수월했던 반면 공감만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끌어갔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li> </ul>	
도시 환경 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닐라의 빈민가 바공실랑안 홈스테이 (6박 7일)</li> <li>2. 바기오 탐아완 빌리지 호텔 (3박 4일)</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카가얀 데 오로 생협 호텔 (1박 2일)</li> <li>2. 다바오 예술가 쿠블라이 호텔 (1박 2일)</li> </o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사와의 프로그램은 호텔에서 머물다보니 소비위주의 활동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고 현지인과 접촉할 기회 또한 부족하였다. 반면 공감만세의 바공실랑안 프로그램은 1주일간 도시빈민가에서의 홈스테이를 통해 빈곤의 삶을 어렵 뜻이나마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동시에 지역 또래아이들로 결성된 자원봉사자 그룹 청년연합 (BSYF)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서로간의 연대의식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li> <li>- 탐아완 빌리지 호텔과 쿠블라이 호텔은 예술과 지역문화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른 점은 탐아완 빌리지는 지역 예술가들이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함께 조성한 사업이고 쿠블라이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다바오 시 곳곳에서 민다나오 문화를 알리는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두 곳 다 도시에 위치한 호텔인 점이 한계일 수는 있으나 동시에 침을 제공한다는 점으로서는 긍정적인 듯</li> </ul>	
전통 마을 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키양안 마을 홈스테이 (6박 7일)</li> <li>2. 바타드 산장/게스트하우스 (2박 3일)</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홀 유기농업 마을 홈스테이 (2박 3일)</li> <li>2. 민다나오 딸란딕 부족 마을 홈스테이 (6박 7일)</li> <li>3. 민다나오 티볼리 부족 마을 민박 (3박 4일)</li> </o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홀 전농마을에서는 농부들의 집에서 숙박을 한 반면 키양안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다. 게스트 하우스라 환경이 깨끗했고 주인집으로부터 친절한 대우를 받고 지낼 수 있어서 좋았지만 보홀에서처럼 필리핀의 평범한 시골농부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li> <li>- 키양안 체류기간이 (보홀에 비해) 길다보니 지역생활에 익숙해질 시간이 충분</li> </ul>	

	<p>했고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었다</p> <p>- * 딸란딕 마을을 방문 못한 것은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딸란딕 마을사람들 특유의 여유로운 정서와 예술적인 감수성, 그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높은 자존감/자긍심은 여행의 막바지에 이른 아이들에게 내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주곤 했다. 2014년 바뀐 프로그램에 딸란딕 마을이 빠져서 아쉽다.</p>	
마을/단체 탐방	<p>바이니난 마을 (당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카미권 케빌라 해변 대합조개 보호마을 (당일)</li> <li>2. 보홀 아바탄 마을 (당일)</li> <li>3. 보홀 농아학교 및 다이아몬드 호텔 (1박 2일)</li> <li>4. BISU 보홀 대학 농업학과 및 유기농 종자은행 (반나절)</li> <li>5. 보홀 청소년 합창단 (공연관람 및 교류)</li> <li>6. 보홀 초등학교 대나무 오케스트라 (공연관람)</li> <li>7. 보홀 유기농 별 농장 (당일)</li> </ol>
평가	<p>- 공감만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로사의 프로그램은 자주 이동해야 한다는 피곤함이 있기는 했으나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다.</p> <p>- 동시에 바이니난 마을은 로사의 프로그램보다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다. 프로그램이 느슨해 오히려 활동들을 즉석에서 제안하고 조율할 수 있었다.</p>	
봉사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업 4번 (바공실랑안 2번, 키양안 2번)</li> <li>2. 나무심기 2번</li> <li>3. 현지인들을 위한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씨티오 어린이집 테이블 만들기 (하루)</li> <li>- 도서관 라벨작업 (반나절)</li> <li>- 교실 페인트칠 하기 (반나절)</li> <li>- 계단식 논 복원 (반나절)</li> <li>- 계단식 논 쌀 수확 (반나절)</li> </u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업 4번 (보홀, 티볼리, 카미권, 딸란딕)</li> <li>2. 나무심기 2번</li> <li>3. 현지인들을 위한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들을 위한 화덕 만들기 2박 3일</li> <li>- 논밭 쌀 수확하기 (반나절)</li> </ul> </li> </ol>
평가	<p>- 로사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공감만세 프로그램의 장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점이라고 여겨진다. 공감만세가 그동안 추진해온 활동 및 프로젝트 (수업, 계단식 논 복원, 평화도서관 등)로 인해 이미 현지 단체와 공감만세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우리역시 첫 방문이었음에도 지역민들과 연대감을 쉽게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로사 프로그램도 비슷한 활동으로 꾸려졌었지만 로사 개인의 관계의 영향력에 크게 좌지우지되는 느낌이 커 비록 활동 당시에는 좋은 감정들이 오갔다 할지라도 현지 단체와의 연대의식으로 이어나가기는 어려웠다.</p>	
전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코르디에라 전통춤 (탐아완, 바이니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쟀베 만들기, 쟀베 연주, 딸란딕</li> </ol>

문화 체험	2. 드림캐처 만들기 (탐아완) 3. 대나무공예 (바타드) 4. 몸바키 축제 (바타드)	전통춤, 흙 페인팅, 대나무피리 만들기 (딸란덕) 2. 철사공예, 드림캐처, 마사지 (에니그마타) 3. 전통 코코넛 간식 수만 만들기 (보홀) 4. 코코넛 잎 공예 (보홀) 5. 비즈공예, 쿠빙, 낫쇠공예 (티볼리마을)
평가	- 전통문화체험은 다양성과 깊이에 있어 공감만세 프로그램이 조금 아쉬웠다.	
자연 체험 /관광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계단식 논 2. 바타드 탑피아 폭포	1. 보홀 - 계곡, 안경원숭이, 마호가니 숲, BISU 대학교 내 오이코 정원, 초콜릿 힐 2. 카미권 - 카티바와산 폭포, 화이트 아일랜드, 케빌라 해변 스노클링, 소다온천, 세인트 니뇨 콜드 스프링, 아덴트 온천, 생태보존구역 (망그로브 숲) 등 3. 민다나오 - 화이트 워터 래프팅
평가	- 비록 공감만세의 프로그램에 로사의 프로그램처럼 환상적인 스노클링이나 붉은 노을을 바라볼만한 바다체험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계단식 논이 전경으로 펼쳐진 산자락 (나가카단, 바이니난, 바나우에, 바타드)에서 총 2주의 진득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연체험으로서는 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역사/ 교육	1. 데니스 머피의 강연 2. 아얌라 박물관 관람 3. 키앙안 전쟁기념관 관람 4. 바나우에 박물관 관람	1. BISU 보홀 농업대학교수의 유기농업에 관한 강연 2. 보홀 교회 탐방 3. 카가얀 데 오로 자비에르 대학 민다나오 역사 박물관 관람 및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의 강연 4. 민다나오 플랜테이션 상황과 농부들의 투쟁에 관한 강연 5. 다바오 지역대학 현대미술전시관 관람
평가	- 지식적인 내용이 통역이 되어 전달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도가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 때문에 로사의 프로그램이 교육적인 면이 내용면에서 조금 더 풍부하기는 하였지만 아이들이 흡수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비슷비슷했던 것 같다.	
단체	1. BSYF (바공실랑안의 청년연합)	1. 보홀 유기농업 농부연합

	<p>2. SITMo (계단식 눈을 지키는 청년연합)의 에코투어 가이드</p> <p>3. 탐아완 빌리지 차눔재단 (예술가들)</p>	<p>2. 보홀 농아학교</p> <p>3. 에니그마타에서 예술활동을 하며 봉사하는 청년들</p> <p>4. 와와이씨 마을 예술가들</p> <p>5. 티볼리 전통예술학교</p>
<p>전체 평가</p>	<p>- 공감만세와 로자의 프로그램 모두 고유의 장, 단점이 있어서 단정을 지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3가지의 이유로 공감만세와의 프로그램을 더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첫째는 소통이 수월했다는 것이다. 로사와의 프로그램은 준비단계부터 진행, 평가까지 영어교사 한명이 소통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폐쇄적 구조였지만 공감만세와는 우리나라말로 소통하기 때문에 대화가 여러 교사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수월하게 오갈 수 있었다. 덕분에 준비하는 인솔교사도 아이들도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할 수 있었고 뚜렷한 목표의식 또한 세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둘째는 프로그램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로자 프로그램은 여행 코디인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다보니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이 크게 좌우되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도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된 상황이 빈번했던 반면 공감만세는 최대한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여행의 활동범위에 대한 조율이 가능하였다. 세 번째는 유기적인 연대감 형성이다.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공감만세는 이미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로 인해 현지단체/마을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우리도 큰 어려움 없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 쪽도 우리를 편하게 대해주었다. 로자 프로그램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로자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짜주는 구조다 보니 프로그램 진행당시에도 우리 쪽에서는 끌려가는 느낌이 컸고 이러한 어려움이 현지단체와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했다.</p> <p>덧붙이자면 로사와의 프로그램은 ‘날 것 그대로’의 살아있는 여행이라는 점에서 공감만세 프로그램과는 다른 장점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로자 프로그램이 잦은 이동과 변화무쌍한 일정으로 체력적으로 소모적이기는 했으나 동시에 그 덕분에 늘 어느 정도의 긴장과 설렘이 유지가 되었고 이것은 아이들이 6주의 긴 여행을 견디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했던 점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로자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딸란딕 마을은 많은 아이들에게 내면의 예술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체험들을 제공해주었고 더 나아가 사고와 정서에 변화를 꾀할 만큼이나 긴 여운을 남겨주었다는 점이 특별했다고 할 수 있겠다.</p>	